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활동보고서

2024.4 - 2024.11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운영

1. 구성취지 6
2. 참가 기관·단체 7
3. 활동일지 8
4. 시화호 1994-2024 10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활동

1.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17
2. 시화호 시민인식 설문조사 38
3. 시화호 미래상 설정 전문가 토론회 64
4.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68
5. 시화호30주년 홍보활동 74

시화호30주년 기념사업

1. 생물다양성탐사 78
2. 시화호 갈대축제 79

활동을 마치며

- 시민의견종합정리 82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운영



시화호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시화호 간척 지대와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는 1987년 4월 착공하여 1994년 1월 24일에 최종 물막이를 완료하였으나 완공과 함께 오염이 시작되어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담수호를 포기하고 시화호에 해수를 유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개선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안산 지역에 환경운동단체들과 전문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정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시화호는 철새들이 날아오는 환경의 보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개발은 종료되었고, 남측간석지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개발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시화호의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모색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가)’ 구성을 제안하였고, 2024년 4월 15일, 총 43개 안산지역 기관·단체들이 모여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실천사업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정책사업 「시화호 시민인식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안산시 민원탁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번	기관·단체명	대표자
1	안산시	이민근
2	안산시의회	박태순
3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4	(재)안산문화재단	이성운
5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홍일화
6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7	(재)안산환경재단	홍희관
8	안산도시공사	허송
9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정진
10	안산시체육회	이광종
11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호방
12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현선
13	경기내일스퀘어안산상대로	문지원
14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기준
15	안산상공회의소	권현석
16	경기남부두레생협	송영미
17	대부도바다생태계복원을위한주민모임	임공철
18	(사)더좋은공동체	윤명숙
19	상동어촌계	김종선
20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상
21	숲과에코협동조합	이선희
22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지네이처	박선미
23	시민과학기록단숨	김미옥
24	시화호생명지킴이	박선미
25	신나는문화학교	최현수
26	아모회	김정숙
27	안산YMCA	이필구
28	(사)안산YWCA	이강숙
29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서치원, 이금자
30	안산도시농업연대	마이금
31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공정옥
32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박상호
33	안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강열
34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35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영림
36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홍지인
37	안산환경운동연합	김학수, 구희현, 최재철
38	(사)안산희망재단	이천환
39	풀뿌리환경센타	이한수, 남윤영
40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강신하
41	한숲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영식
42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계숙
43	협동조합마을카페마실	정은철

실행위원회

- 추진위원회 구성 대표자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시화호생명지킴이, 해양환경교육센터



3.26 추진위 구성 제안 공문 발송

4.15 구성 대표자회의

5.3 실행위원회 1차 회의

5.4-5.6 안산거리극축제 시화호30주년 홍보부스 운영

5.18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방아머리-외지섬 코스 걷기

6.1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시화호30주년 홍보전시

6.5 시화호 시민인식설문조사 시작

6.9 실행위원회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기획회의

6.14 실행위원회 2차 회의

6.22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갈대습지-호수공원 코스 걷기

7.13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탄도항-외지섬 코스 걷기

8.24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방아머리-시화나래 코스 걷기

8.28 실행위원회 3차 회의

9.8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호수공원-반달섬 코스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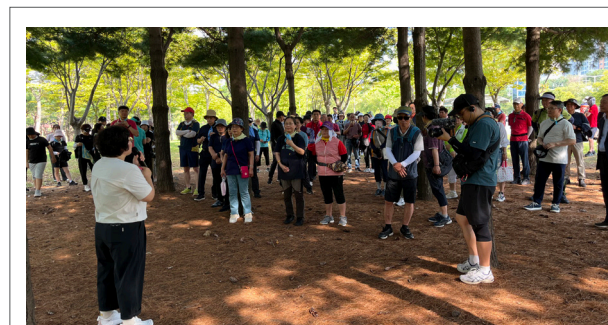
9.26 시화호의 미래상 설정 전문가 토론회

10.2-10.15 시화호30주년 홍보 거리현수막 게시

10.8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10.30 실행위원회 4차 회의

11.7 해산 대표자회의



시화호 199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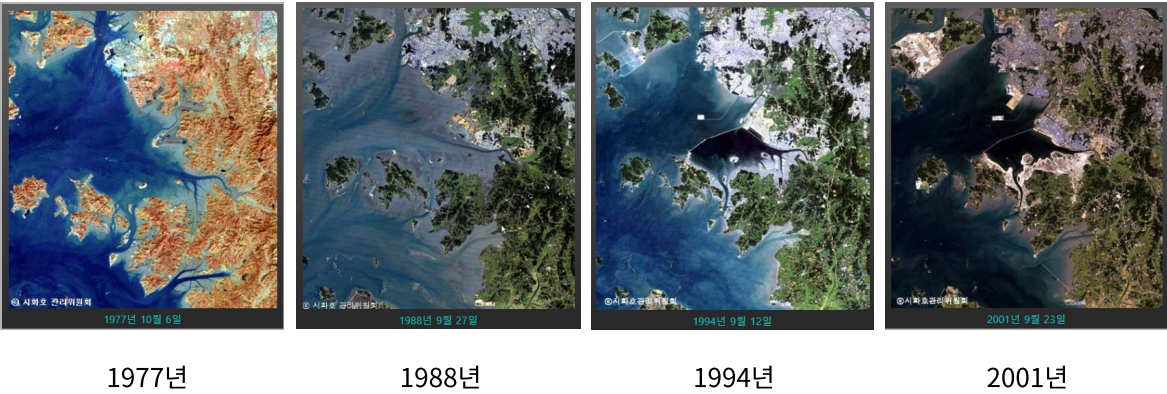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발표자료입니다.

시화호 이전

시화방조제 조성 이전의
 시흥군 군자면, 화성군 서신면, 웅진군 대부면(현재의
 안산시 대부도) 일원은 어업과 농업으로 삶을 일구었음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생겨난 시화호



시화호 조성

-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 1977 반월신공업도시 착수
 - 1986 시화공단, 방조제 착수
 - 1994 시화방조제 완공 (시화호, 간석지 생성)
 - 1998 특수지역 확대지정 (시화호 및 남,북측 간석지)
 - 2001 시화MTV 개발계획 고시
 - 2008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고시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생겨난 시화호





시화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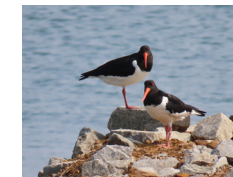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환경기초시설 미비
시화호 수질환경, 대기환경 악화

1996년부터 시화호 오염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담수호 포기 → 해수호로 전환 (2000.12)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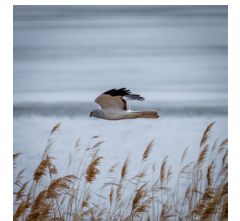
시화호와 함께 살아가는 안산 시민들
시민들의 환경개선 목소리, 환경보전 행동들



- ▶ 시화호 해안정화 활동, 생태교육, 생물 모니터링
- ▷ 시화호대회, 시화호청소년캠프, 시화호공론장 등

시화MTV 개발계획 발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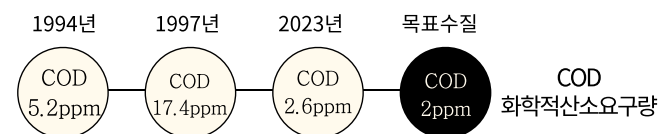
- ▶ 개발에 대한 격렬한 반대
-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 (개발이익금 지역환원)



시화호 이후

환경개선의 노력

안산갈대습지, 하수종말처리장, 시화호 내 오염
저질토 준설, 시화호 유입하천 생태하천화, 민간
환경감시단, 조력발전소 가동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

오염물질 유입저감, 지속적인 해수유통
▷ 조류, 저서생물 생태계 복원
▷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

복원은 현재진행형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평가 존재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활동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시민들이 직접 시화호를 걸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시화호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의견을 수렴해 이후 전문가 토론회, 민관협력 토의를 통해 '시화호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함.

행사 개요

기간 : 2024년 5월 ~ 9월 (월 1회)

장소 : 시화호 권역(갈대습지, 호수공원, 반달섬, 시화나래, 방아머리, 외지섬 등)

대상 : 안산시민 누구나 (일정, 코스를 보고 선택하여 참여)

걷기 코스



영상 보기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스케치 영상 보기

카드 뉴스

시화호30주년 실천사업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시화호를 걸으며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시화호를 직접 걸으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시화호를 걸으며 이야기 해주세요”

새벽녘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해질녘 멋진 노을을 보며 함께 시화호를 걸어요.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 모여 함께 출발해요. 일정을 마치면 다시 화랑유원지로 돌아옵니다.

<p>6월 22일 (토)</p> <p>갈대습지 - 호수공원 (4.5km)</p> <p>버스 출발 시간 17:00 화랑유원지 3주차장</p> <p>걷는 시간 17:30 ~ 19:00 생태 해설, 일출 풍경, 야생동물</p>	<p>7월 13일 (토)</p> <p>탄도항 - 외지섬 (11.3km)</p> <p>버스 출발 시간 04:30 화랑유원지 3주차장</p> <p>걷는 시간 05:00 ~ 08:00 생태 해설, 일출 풍경, 야생동물</p>
---	--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시화호를 걸으며 이야기 해주세요”

<p>8월 24일 (토)</p> <p>시화나래 - 방아머리 (4.1km)</p> <p>버스 출발 시간 04:30 화랑유원지 3주차장</p> <p>걷는 시간 05:00 ~ 06:30 생태 해설, 일출 풍경 (5:56)</p>	<p>9월 8일 (일)</p> <p>호수공원 - 반달섬 (8.6km)</p> <p>집결 시간 15:30 호수공원 1주차장</p> <p>걷는 시간 16:00 ~ 19:30 생태 해설, 일출 풍경 (8:50)</p>
--	--

참여 방법

- 가능한 일정을 선택해 QR코드 또는 구급함으로 신청
- 버스 예약이 필요하니 참가 인원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신청 인원에 따라 버스 1~2대 운영 예정)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시화호를 걸으며 이야기 해주세요”

참가지 안내사항

- 날씨 고려한 편안한 옷차림, 운동화, 모자 필수
- 버스 제공, 기념품 증정
- 물, 간식 등 참가자 개인 준비
- 사전 영상 촬영 초상권 동의서 작성

문의

- 039 483 - 0221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걷기 일정 마친 후, 길오면서 찍은 인상적인 사진 1장과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외지섬-방아머리

일시 : 2024. 5. 18. (토) 09:0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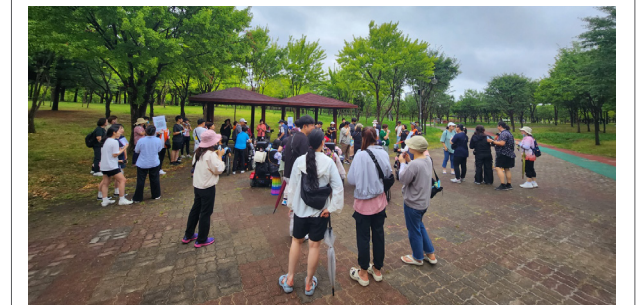
참여 : 안산시민 40명



갈대습지 - 호수공원 (4.5km)

일시 : 2024. 6. 22. (토) 17:30-19:30

참여 : 안산시민 96명



6. 22.

함께 걷은 시민들의 소감

황현주

비가 그친 깨끗한 시화호 둘레길을 걸으며 다시 한 번 시화호의 지속 가능성을 기원합니다.

김영희

장애인과 같이 걷는 모습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씩

임숙순

비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의미 있게 시화호를 알아가는 좋은 행사라 더욱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태습지, 갯벌, 주변풍경과 식물의 이름 등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분들 고맙고, 자원봉사 선생님들, 진행요원으로 열심히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즐거운 주말이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희

안산시민으로써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시화호가 되길 바랍니다.

양선주

저는 안산에서 3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공지내용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시화호가 많은 변화가 있어지는 느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화호의 첫물줄기가 갈대습지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은 했지만 참여하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진행 하시는 분들도 차분히 안내 지도해주시고 좋은 경험의 하루 였습니다.~

김순아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아침부터 내린 비에 내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진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산책과 운동을 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시화호가 있어 안산시가 더욱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보존되길 바랍니다~^^

장정화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었어요. 좋은 자연도 구경하고 간식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차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모로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화호가 깔끔해져서 참 다행이구요. 앞으로도 잘 유지해서 좋은 환경 계속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염경미

시화호30주년 시민걷기에 지인 세 명과 같이 참여하였다. 생태해설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공유수면으로 불리던 바다가 시화호를 건설하면서 거대한 간척지 땅이 만들어진 30년을 보는 듯 하였다. 화성, 시흥,안산지역에 걸친 시화호는 각 시에서 앞 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다. 화성은 송산그린시티, 시흥은 거북섬, 반달섬을 거점으로 해안 바다부를 내세우며 개발을 한다. 안산은 이미 반월공단을 가지고 있다. 바다를 메워 생긴 도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해양동, 고잔동 일대를 건설하였고 송산 새솔동과는 갈대습지를 따라 시화호로 흘러가는 갯벌이 하천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수변공원을 따라 걸으며 미류나무, 은가시나무, 이팝나무, 버드나무, 벚나무, 아카시아, 곰솔 등을 보았다.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관상목으로 해당화, 자귀나무도 보며 나무와 꽃을 보며 우리는 걸었다.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더니 우리가 걷기 시작한 5시부터는 거짓말처럼 날이 개었다. 시민걷기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를 주최한 시화호 30년 돌아보기와 앞으로 지키기 위한 주최 측의 노고를 덜어주려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시화호를 만들었듯 앞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시민의 몫이다. 특히 오늘은 상록장애인 자립센터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걸으며 숲과 나무, 물과 길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천천히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대부분 놓치고 살아간다. 오늘 시화호걷기에 참여하여 매우 뜻 깊고 다음 코스를 기대한다.

백은자

아침부터 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비가 그쳐 시화호를 걷다 갈대습지에서 호수공원까지 의미 있는 걷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를 해보며 단체등록 8명 모두 만족하며 좋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영옥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덕분에 시화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갈대습지가 시화호의 시작점이라는 것과 갯벌이라는 점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조류들의 먹잇감이 풍부한 서식지시화호로 탈바꿈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가 작은 관심을 기울여 시화호와 상생하며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명희

별 기대 없이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에 한번 참여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시화호에 대한 설명과 짬짬이 해설이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도 함께 걷고 안산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이 이제야 안산시민이 된듯하여 기쁘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유병연

시화호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 시화호 걷기 행사 참여하게 되어 감사했어요. 날씨도 걷기에 좋았고 간만에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걸었던 길에 보였던 호수가 갯벌이라는 것도 바다의 시작이며 상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쫘 지친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김진희

안산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서 많은 샘물들과 철새들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시화호가 된 것에 더욱더 뿌듯합니다.

김경탁

행사 시작 전까지 마음 졸리며 하늘만 계속 쳐다봤던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걷기에 너무 좋았던 날씨였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지만 그 중요함과 의미를 모르고 지낸 지난 일들을 반성하게 만든 트레킹이었습니다. 습해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밝은 얼굴로 걷던 장애우님들 보면서 저 자신도 뒤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두병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려 아쉬움도 생기고 열정도 사그라들즈음 행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비가 잦아들어서 행사장으로 출발하여 버스에 올라서 시작지점으로 가는 동안 주최 측 관계자께서 시화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동안 잘 몰랐던 시화호에 대해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이 억지로 뭘 하려고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훼손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참 오래 걸리는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점에 도착해서 보니 조금 놀라기도 그리고 부끄럽기도 한게 장애인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참가하신 걸 보고 '아! 그래! 장애인이라고 이런 행사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비장애인의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충분하구나.' 나 역시도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건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럽고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서 너무 좋아하시는걸 보고 저 역시도 좋았던 거 같습니다. 저는 원래 걷는 걸 좋아해서 출퇴근도 걸어서 하고 이번 행사로 걸었던 길도 가족·지인들과 자전거로 오갔던 길이라 반갑기도 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던 때 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간 중간 각 지점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솔자간 통신장치를 준비하시어 인솔자간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남아있는 행사에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의미로 행사를 진행하였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분쟁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행사를 전부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참가하는 다음 행사에서 웃는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서소연

지인의 소개로 안산시 시화호 30주년 실천사업으로 주최하는 시화호걷기에 참여하였다. 오 전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인해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약속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사는 나는 무작정 화랑유원지로 향했다. 안산 거주자가 아니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초지역에서 출구를 찾아 해마다 기다리는 버스에 겨우 올라탔다. 날씨는 어느새 '모세의 기적' 처럼 비가 멎고 환해지기까지 하여 안도하며 갈대습지에 도착하였다. 주최 측에서의 많은 준비로 버스대절, 기념품, 간식,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해설가, 안전도보 도우미 등등으로 인해 쾌적한 도보가 시작되었다. 예상외로 시화호 주변 자연적 풍경과 신축 고층아파트가 잘 어울렸고 시화호의 시작점인 갈대습지부터 호수공원까지의 4.5킬로는 즐거운 담소와 풍부한 스토리를 담은 해설을 듣다보니 너무 빨리 도착하여 조금 아쉬울 지경이었다. 시흥·화성의 첫글자로 시화호로 이름을 지었지만 대부분이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70% 이상이 안산시 면적으로 안산시에서 주관리를 맡고 있다고 한다.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 속에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로 결정하며 오염된 시화호를 '생명의 호수'로 회복시킨 점, 무한청정 에너지원인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한 점 등은 인간만의 '위대한 도전과 응전'의 한 페이지가 변모된 오늘날의 이 시화호인 점이 가히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시화호가 세계적인 환경개선 모범사례로 가치 확장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일단 이번 한번만 참석해 보자 했는데 나도 몰래 어느새 다음 코스에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화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남과 동시 신체의 유연성과 기동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된 의미있고도 멋진 하루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싶다.

서민우

너무 예뻐요. 그런데 조금 더 놀거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숙자

안녕하세요 시화호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날씨가 안 좋는데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해서 뜻깊은 봉사를 한 것 같아요. 장애인분도 함께 행사를 진행하셔서 더욱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도와서 밝은 미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성미

일몰이 예쁘다고 하여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렸는데 비가오는 이유로 그 예쁜 일몰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센터 동료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거닐었던 길이 참 좋았습니다. 예쁜 길을 만들어 주신 안산시와 그 길을 이끌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다시 참석하겠습니다^^

지도화

잘 놀다갑니다. 예전처럼 물이 탁하지도 않고 맑아서 너무 좋았어요.

구설희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첫 날 갈대습지를 출발하여 호수공원까지 4.5km를 걸으며 죽었던 시화호에서 생명의 용솟음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담수호로 만들고자했던 인간의 욕심이 시화호를 병들게 만들었지만 뒤늦게나마 물고를 틔어 살아있는 바닷물을 유입하면서 새생명을 얻게된 시화호의 한 언저리인 갈대숲과 호수공원엔 철새들까지 간간히 눈에 띈다. 갈대가 우거진 호수양쪽이 갯벌이라니 그 속엔 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지... 시화호30주년을 맞아 걷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예

우리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시화호발전을 바라며 걷기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그 어떤 것 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제되지 않음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장애인들에도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도항 - 외지섬 (7km)

일시 : 2024. 7. 13. (토) 4:30-9:00

참여 : 안산시민 60명



7. 13. 함께 걷은 시민들의 소감

오정진

새벽 걷기 넘 좋아요. 탄도-불도-선감도-외지섬 미개방 구간의 자연경관도 너무 예쁘고 저어 새 물새 고라니 잠자리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자연생물들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이런 좋은 곳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려요 매년하면 좋겠어요.

조경아

친구 따라 시화호 미개방로 왔다가 큰 울림 받고 갑니다. 그 동안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노고에 다시금 머리가 숙여지고 이른 아침 단잠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불러준 친구도 고맙고 타라온 나도 기특하고. ㅎㅎ 암튼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에 와서 몸도 맘도 치유하고 갑니다.

김수빈

저는 안산에서 20년째 거주중인 30대 입니다. 여지껏 시화호를 떠오르면 들었던 생각이 오물, 똥물이었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왜 세워졌는지 수질개선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무지하였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큰 세계만을 생각했지 이렇게 본인이 20년이나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는 무지하다는 것이 무척이나 반성되는 걸음 이었습니다. 마치 제일 중요한 집. 가족에게 평소에 잦은 짜증을 내는 제 모습과 일치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 안산을 집과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안산의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과 함께 새벽부터 걸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승희

시화호 30주년 맞이 시화호의 역사를 살피고 미개방 지역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새벽의 이른 출발도 충분히 감내할 가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주최측을 비롯한 환경지킴이분들께 감사 합니다.

이름 미공개 시민

시화호에 대한 역사와 함께, 시화호 거리를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시화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오늘은 더군다나 미개방로를 걸으며 쉽게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과 자연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다. 다만 함께 걸으면서 마스크 등 쓰레기를 버린 행위를 보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자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미개방로를 걸으면서 더더욱 시화호를 포함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이전에 시화호가 죽음

의 호수라고 불렸던 것처럼, 지금 망가진 자연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 단순히 함께 시화호를 걷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윤주

안산에 살면서도 시화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는데요. 인공바다호수인 시화호를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그곳에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식물 등 많은 것들의 먹이줄기가 되어주는 호수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깨끗한 시화호를 위해 텀블러사용, 대중교통이용, 장바구니사용 등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계속 실천 할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큰 힘을 발휘할 거라 믿어요! 후세를 위해 환경지킴이가 되어볼게요!!

김경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미개통 구간에 공기도 좋고 평소에 볼 수 없는 새들도 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더 많은 안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주세요.

김원진

주말에 아이들과 뭘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 "시화호 3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걷다"라는 이벤트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른 아침이어 아이 둘 깨워 나오는 게 큰 일이었지만 미개방 탐방로는(탄도항-외지섬 구간)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일출도 보고 걷고 이야기도 나누며 나뭇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자연보호라는 문구를 들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 우리가 보아온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함께 걸어 주신 분들 곳곳에서 자세히 해설해주신 선생님 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데려다주신 기사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최운경

새벽 4시30분에 떠나는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 미세먼지 나쁨에 구름이 가려 일출은 글렀다는 날씨예보와 달리 우리는 태양을 거슬러 가는 새들의 집단 움직임을 보았고, 얇은 안개가 낀 마산수로쪽 어섬과 형도의 어슴푸레한 모습이 마치 새벽 두물 머리에 가서 만난 동양화의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시선을 바꿔 길에서 왼쪽 방향이 대부도 쪽이었는데 백로, 쇠백로, 저어새 등의 새들이 유유히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도 맞이했다. 아무나 누리는 풍경이 아녘다.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에 놀랐다. 나 같은 이들이 많았겠지? 94년 물막이 공사 이후 죽음의호수로 악명이 높았던 시화호. 내가 안산에 와서 아이낳고 엄마가 되어 가입한 두 번째 시민단체가 시화호생명지킴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죽음의 호수를 물려줄 수는 없잖은가? 지금은 겨우 걸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시화호. 1년에 몇 번 정화활동에 나가보면 기상천외한 것들이 쓰레기로 나온

다. 예를들면 대형 가전제품. 우리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지구를 오염시키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우리다. 나까지만 살고 말 지구가 아니라면 말이지. 지속가능한 개발 말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고민할 일이다. 전봇대 하나 없는 시야가 톡 트인 그 곳은 우리의 산소통 같은 존재다. 죽음을 택하지 말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택했으면 좋겠다.

이숙경

시화호 탄도수로를 처음 걸어본 게 아마도 20년 전 쯤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자연생태안내자 공부를 하면서 멋모르고 따라다니며 이런데도 있었네 놀라워했고 시화호가 막혀서 드러난 땅이라 생태환경도 좋지 않아 황량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세월이 흘러 막힌 시화호를 열어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신 온갖 철새들이 찾아오는 드넓은 습지가 거기 있었다. 아무나 접할 수없는 제한적인 땅, 그래서 너구리들의 공동 화장실도 볼 수 있는 꽤나 야생의 느낌이 나는 현장이 되어있었다. 더구나 “새벽 일출보며 걷기”는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신선해서 얼른 신청했고, 약간의 인내가 필요했지만 운동되고 좋았다. 남이 쉽게 보지 못할 자연환경, 지천에 백로, 흰뺨검둥오리 등 오리 종들, 빨논병아리, 왜가리 등 새들과 함께 걷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하고 간식도 나눠먹고 그냥 즐거운 새벽소풍이었다.

이희진

시화호 30주년 뜻깊은 기념행사 탄도항-외지 섬을 함께 걸을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 따라 우연히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른 새벽 기상하는 것조차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이었고 걸으면서 일출을 볼 수 있어 이 또한 뿌듯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개방 도로를 걸으면서 자연스러운 생태계도 경험할 수 있었고 걷는 것은 갈수록 힘이 조금 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방아머리 - 시화나래 (4.1km)

일시 : 2024. 8. 24. (토) 4:30-8:00

참여 : 안산시민 50명



함께 걷은 시민들의 소감

조원혜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소중한 추억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새벽부터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시화호를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화호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는데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일회용품도 줄이고 자연을 더욱 사랑하며 나 먼저 실천 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국내최대 규모의 인공바다호수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걷는 도중 자전거 길이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방해가 된 건 아닌지 조금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도 위주로 걷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족들과 일출 볼 생각에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잠이 많은 막내아들도 일찍 일어나 동참해서 더욱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기대해 봅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좀 더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준호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해 뜨는 순간까지 걸어가니 그 바닷길의 푸름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최윤미

중1 아들과 함께 시화호걷기를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안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도 제대로 몰랐던 시화호이야기들을 아들과 함께 들으며 현재의 시화호를 보며 새롭게 느껴졌어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생태이야기들이 모두 유익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땀내며 나아진 시화호걷기가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조경아

시화호 걷기 프로젝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정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 잠이 많은 편인데 새벽잠을 포기한 보람이 너무 있었다. 새벽이라 젊은 사람들이 적은 게 좀 아쉬웠지만. 방조제 끝까지 걸어갔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걷는 중간 중간 무궁화에 애국심 뽐뽐.ㅋ 붉게 떠오르는 아침 해에 밝은 미래를 상상. 모든 것이 좋은 하루여서 다음에도 도전♡♡♡

백승희

시화호 30주년 , 43개 추진위의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시화호의 긴 역사를 생각해 보며 방조제를 걸어 볼 수 있어서 유익 합니다. 아쉬운 점은 구선착장부터 시화나래휴게소 4.1키로 구간이 다소 짧았던~~ ㅋ 안산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기대 합니다.

박정훈

시화호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차를 타고 지나가본 적은 많지만 직접 걸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걷기가 지루할 것 같았는데 떠오르는 해,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와 드론을 보면서 걷기를 하니 재밌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시화호가 30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오염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다시 깨끗한 시화호가 되고 여러 동물들이 다시 찾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가 전기를 매우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시화호 걷기를 한 좋은 추억이 생겨서 좋았고 앞으로도 시화호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

안산시 시화호 30주년 기념 걷기에 참석했다. 이른 새벽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화랑유원지에 모여 버스에 올라탔다. 어둠이 걷히기 전 이렇게 일찍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사님과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걸으니 시화호의 발전과 조력 발전량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약간 습한 기운은 걷는데 활력을 주었고 걷는 중간에 꽃향기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새롭게 바뀐 시화호를 거닐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계속해서 발전되어가는 시화호가 되길 바란다.

염경미

세번째, 시화호를 함께 걷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자 제주도에서, 과천에서, 용인과 안산에서 나의 지인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걸었다. 모두 안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시민이다. 제주에서 온 강샘은 명퇴 후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30여년을 안산에서 교편을 잡았다. 나머지 네 사람은 지금도 안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기에 시화호와 안산은 매우 긴밀하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터전을 물려주어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화호의 성장을 기록하기를 바란다. 시화호를 함께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운영을 희망한다.

임숙순

시화호를 지인과 걸으며 안산에 살아온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화호도 해설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14년 살고 올라온 안산에 30년 넘게 살면서 저에게 많은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아지는 안산과 시화호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걷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0^~

김영순

줄린 눈을 비비며 참가한 시화호 걷기. 새벽길 걷기는 처음이라 망설이며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새벽바람 맞으며. 살며시 스며드는 풀내음,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걷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화나래 휴게소에서 시화호와 생태계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잠과 이겨내 참여한 행사로 일출도보고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

이른 새벽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시화 방조제를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1996년부터 98년 7월까지 시화공단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그 당시를 떠올리며 달라진 현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화호, 참 많이 변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수공원 - 반달섬 (8.6km)

일시 : 2024. 9. 8. (일) 15:30-19:30

참여 : 안산시민 180명



9. 8. 함께 걸은 시민들의 소감

이병철

시화호를 걸으면서 운동과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뜻깊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예준

시화호를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특히 시화호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신기했고 뜻깊었다. 더욱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김요엘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시화호와 안산에 대해 대화하고 나눌 수 있음에 뜻깊었습니다. 봄, 가을에 이런 행사들을 더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강보민

오늘 안산시민들과 함께 호수공원에서 가볍게 몸풀기 운동 후, 호수공원에서 출발하여 반달섬까지 걷는 동안 시화호에 대한 이야기와 갈대 이야기 등 해설도 잘 듣고 알게 된 시간입니다. 안산시민으로서 시화호까지 걷는 뜻깊은 첫 경험이 된 시간이 되었고, 긴 시간 시화호의 나아진 모습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부부가 함께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미숙

죽음의 바다였던 시화호가 30년 만에 생명의 호로 변화해가는 데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실천이 꼭 필요했습니다. 시화호 환경보호와 발전에 미력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희

오늘 걷기 행사에 참여해서 환경해설가님의 해설을 들으며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시민들이 소소한 모임으로 환경 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도 주우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환경개선에 좋은 행사가 있으면 또 참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카누장 및 유람선을 빨리 운행해 시민의 휴양지로 각광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숙경

시화호를 거쳐 대부도를 수십 번 오고갔지만 호수공원에서 반달섬까지 8.6킬로 걷기는 생전 처음이라 고심 끝에 도전했다. 호수공원 끝자락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경계가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 신기했고, 걷는 길 가로수 주변 꽤 긴 도로가에 해당화가 지고 난 빨강열매가 인상적였다. 필드스코프로 본 저어새, 백로, 기러기, 왜가리는 생명의 시화호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걷기를 잘 마치고 시화호의 노을을 보며 앞으로 더 깨끗해져라. 더 자주 오겠다 다짐을 했다. 힘든 여정을 견디고 서로 독려하며 완주를 함께 했던 이들과 시원한 냉면으로 저녁을 먹고 헤어지니 모든 걸 다 이룬 양 행복해졌다. 힘든 한주를 보내고 휴식이 필요할 때 달려가면 품어주는 우리의 시화호, 잘 지키고 보호해야겠다.

서소연

어제 네 번째 시화호 걷기까지를 모두 참여한 저로서는 남다르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특히 2-3회 이른 새벽 트래킹에는 안산 여성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참석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지막 행사에는 대학생같이 젊고 멋지신 시장님과 함께 걸으니 더욱 의의가 깊었습니다. 저는 비록 안산 시민은 아니지만 안산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며 용인에서 안산을 수인선으로 오가며 사계절을 오감으로 느끼며 안산에 애정이 깊어가는 중 시화호 걷기는 안산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화호, 담수호, 해수호, 갈대숲, 호수공원, 방아머릿길, 반달섬, 탄도항, 외지섬 등 두 번째 새벽 걷기 중 여명 속으로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고라니가 갯벌을 사뿐 사뿐 뛰어가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슴과 다름없는 우아한 몸짓에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아련합니다.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된 안산 시화호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간 주최하신 분들,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정숙

시화호 걸으면서 우리안산에 이렇게 좋은 풍경과 해솔길이 있어서 참 살기 좋은 안산시구나, 길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새들도 돌아오고 갯벌에서 조개 잡는 어부들 모습도 보이고 시화호를 살려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산시 ^^

오희경

시화호 걷기 신청해놓고 일주일 전부터 매일 4키로 5키로 6키로 늘리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반달섬 선셋을 기대하며 운동루틴을 만들기 위해 신청해놓고 스스로 미션을 수행 했습니다. 아쉽게도 여유 없이 버스 탑승 후 복귀했지만 8킬로를 걷는 내내 평소 차로 지나치기 바빴던 풍경을 담을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중간 휴게 공간. 식수원 등 걷는 사람의 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산시의 캠페인 덕분에 내가 사는 곳을 둘러보고 역사도 듣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진우

평소 시화호를 알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번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석양과 깨끗한 시화호를 보며 안산에 시화호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아름답고 깨끗한 시화호를 우리 손으로 아름답게 지켜 나가 기위해 많은 생각과 행동을 실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용기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성공리에 잘 마쳐서 기쁩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화

초가을~ 햇살은 뜨거웠지만 좋은 사람들과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며 차로만 오가던 길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화호와 갯벌, 이곳에 쉬러오는 철새들의 이야기를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걸을 수 있어서 넘넘 즐거웠습니다^^ 행사 준비에 신경써주신 지속협과 자봉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8.6km를 완주하신 안산을 사랑하고 시화호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자연이 살아야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함민수

무심코 버리는 페트병들이 숲속에 있는 걸 많이 주었습니다. 걸보기에 깨끗한 것 같아도 숨어 있는 휴지 같은 걸 주우면서 시화호를 걷는 봉사 일 년에 한번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민들의 의식이 모두가 깨끗한 시화호의 아름다운 전경과 낙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선

시화호가 아름답기는 하나 안산사람으로서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을 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관광지로 방문하기에는 접근성도 좋지 않고, 수변반대쪽은 공단이 대부분이어서 구경거리도 없다. 관광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듯하다.

허은이

걷는 내내 쓰레기도 많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어서 좀 속상했어요. 시화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서 걸을 때도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가도 힐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화호와 석양은 넘 멋있었어요~

염경미

9.8일. 마지막 코스로 호수공원에서 반달섬까지 걸었다. 마지막이라서인지 시민들이 제일 많았다. 늦더위가 기성을 부려서 땀이 콩죽같이 흘렀다. 그래도 함께 걸으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 늘 동행한 서소연샘과 걸으면서 비로소 시화호가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늘 가던 곳이지만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부분적으로만 보였던 시화호가 이제는 연결이 되었다. 해산 무렵에 이민근 안산시장이 인사를 했다. 오늘 시민과 함께 걸었다. 나는 지는 노을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동시에 함께 걷는 사람을 중히 생각한다. 자연과 사람, 시화호와 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상상해본다. 사람의 아름다운 상상은 현실이 되니까 희망적이지 아니한가? 이 행사를 진행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시화호에 대해 설명해주신 갈대습지선 생님의 해양생태계의 해박한 지식 감사드려요.

이종길

이 길을 자동차로는 많이 다녔으나 걸어서 반달섬까지는 처음입니다. 저는 대우7차에 살고 있어 늘 시화호와 더불어 생활하다보니, 익숙하지만 나름 시화호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네요! 무더위에 행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구요. 미비점 보완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연화

자전거 타고 시화호를 건너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러워서 한 번 쯤은 건너보고 싶었던 시화호에서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좋은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화호 시민인식 설문조사

I. 조사 배경 및 목적

2024년 올해는 시화호 방조제 완공 후 30년이 되는 해이다. 시화호는 대규모 간척을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 농지를 조성하고 담수화 된 호수의 물은 농업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건설된 곳이다. 그러나 1994년 방조제 완공 후 급격한 수질오염으로 1997년에는 COD가 17.4ppm까지 치솟았고, 대규모의 어류와 패류 폐사 등 극심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여 2000년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호로 전환하였다.

해수호 전환 결정 이후에도 도시와 산업단지의 개발은 계속되었으며, 농지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화호 유역의 안산, 시흥, 화성 주민들은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인해 오염도시, 공해도시라는 오명, 매연과 악취에 따른 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피해와 변화를 겪어왔고 이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북측간척지에 들어선 MTV 산업단지 조성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환경개선기금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개발이익금의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남아 있으며, 남측간척지의 송산그린시티 개발은 1단계 사업만 진행된 아직 시작 단계이다. 농업용지 예정지인 대송단지 또한 일정이 지연되며 아직 미완공 상태이다.

그럼에도 시화호와 시화호 유역에는 아직도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며 각 사안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방조제 완공 30주년을 맞아 그간 시화호와 관련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를 향후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으려 한다.

II. 조사 방법 및 대상

조사는 시화호 유역의 안산, 시흥, 화성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는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문항작성은 초안작성 후 이 3기관의 관련자 사전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종문항은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문항 3개, 시화호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시민인식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의 주요 내용은 시화호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련 경험, 향후 변화방향에 대한 의견, 관련활동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시화호 유역의 법정보호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조사는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인쇄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모두 937명으로 안산이 514명, 시흥이 369명, 화성이 54명이다. 응답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 286명(31%)로 가장 많고, '40대' 220명(23%), '60대 이상' 157명(17%), '30대' 145명(15%), '20대' 89명(10%), '10대' 40명(4%)의 순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50대' 32% '40대' 20%, '60대 이상' 19%, 시흥의 경우 '40대' 28%, '50대' 28%, '30대' 18%, 화성의 경우 '50대' 35%, '40대' 26%. '60대 이상' 22% 순서로 많다.

표 1.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연령대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10대	40	4%	32	6%	4	1%	4	8%
20대	89	10%	44	8%	45	12%	0	0%
30대	145	15%	75	15%	65	18%	5	9%
40대	220	23%	102	20%	104	28%	14	26%
50대	286	31%	163	32%	104	28%	19	35%
60대이상	157	17%	98	19%	47	13%	12	22%
계	937	100%	514	100%	369	100%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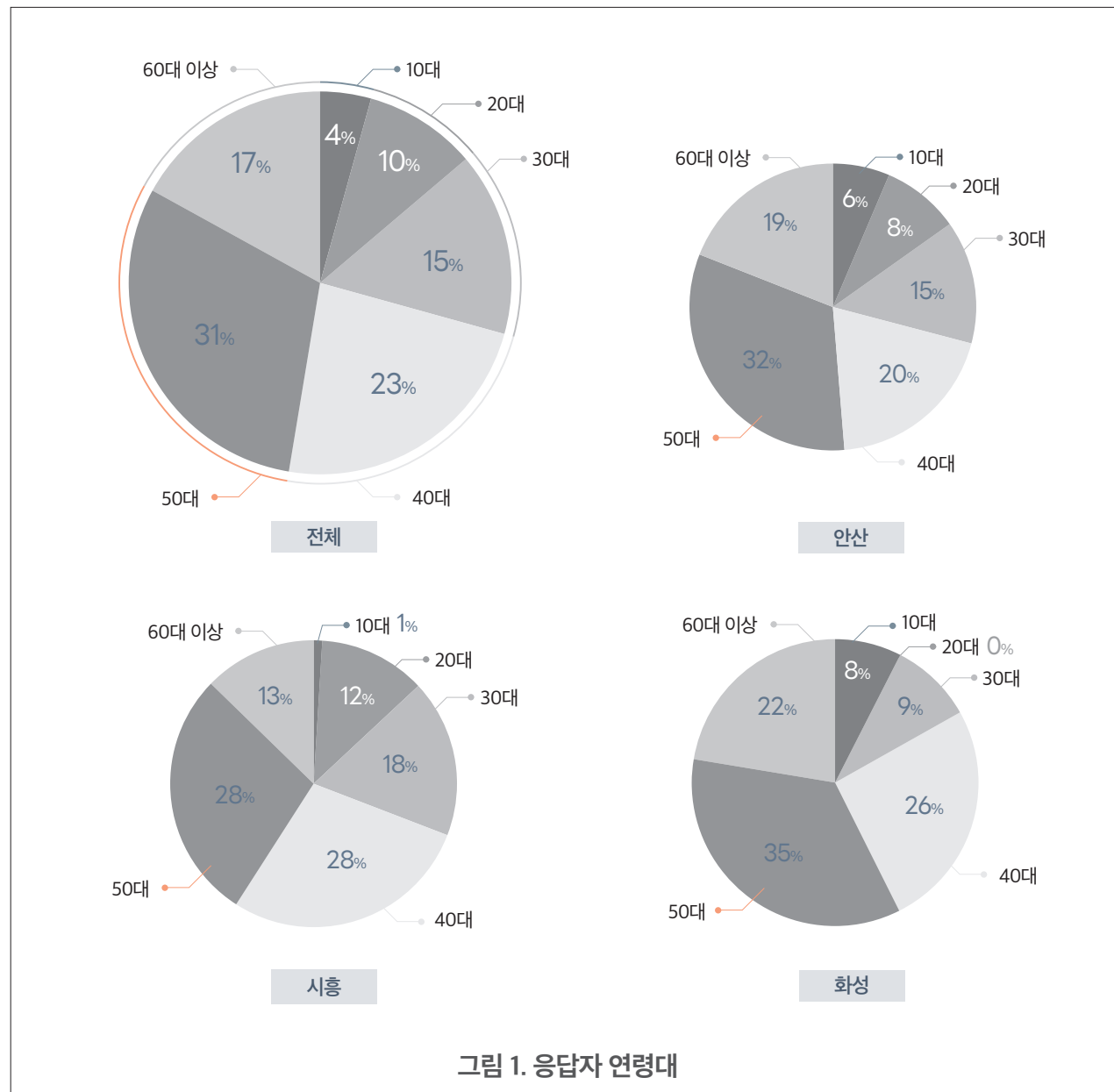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연령대

전체 응답자들 중 여성은 610명으로 65%이고, 남자는 327명으로 35%로 여자가 2배 가량 많다. 시흥이 여자 72%, 남자 28%로 가장 차이가 크고, 안산이 여자 60%, 남자 40%로 비교적 차이가 적다.

표 2. 응답자 성별 구성

성별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남	327	35%	204	40%	103	28%	20	37%
여	610	65%	310	60%	266	72%	3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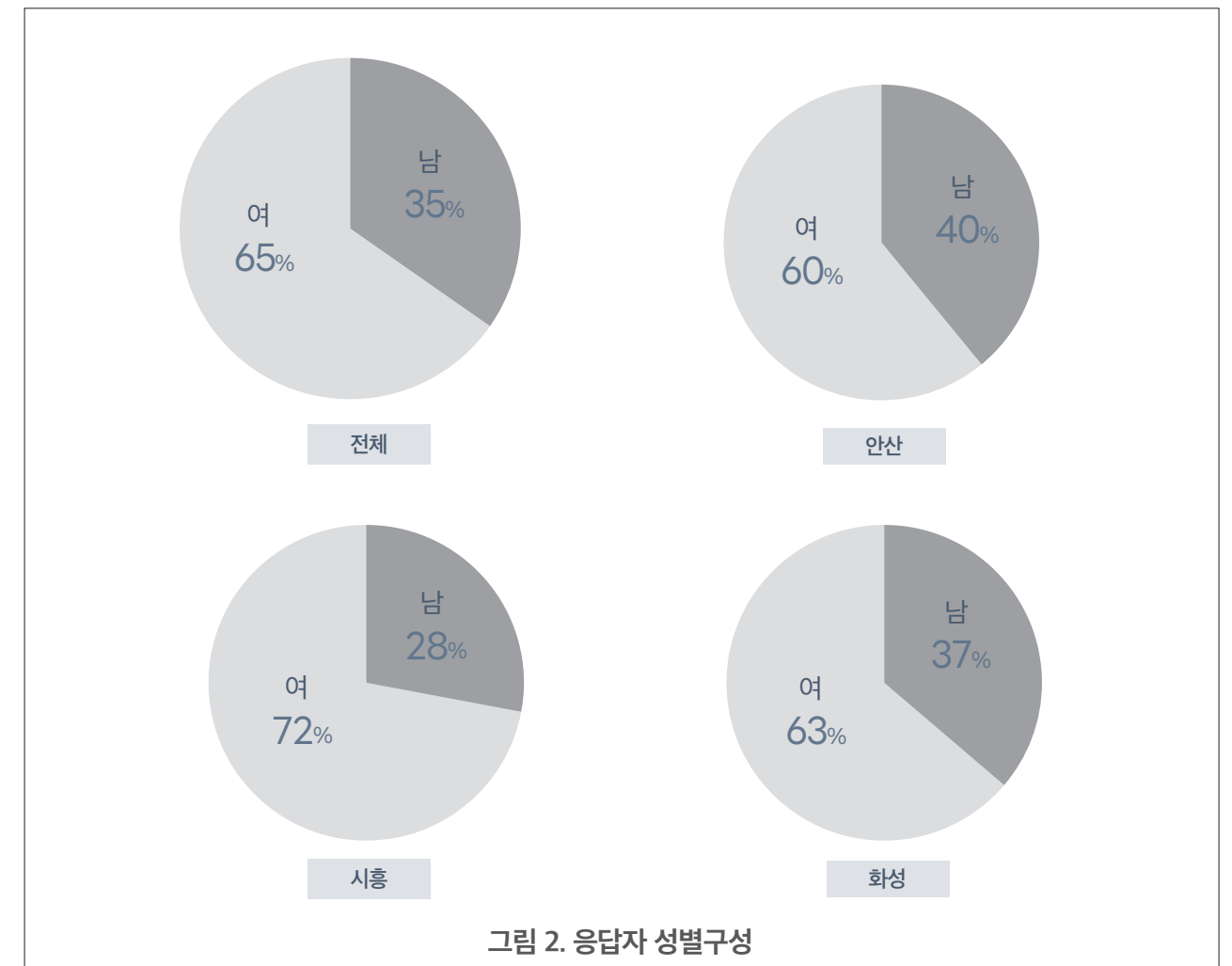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성별구성

결과 분석 시에는 응답자 수 뿐 아니라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도 표시하였다. 이는 지역별 응답자의 인원의 격차가 심하고 복수 답변의 문항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응답은 전체 응답자 937명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지역별 분석은 안산지역의 결과는 안산지역 응답자 514명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 시흥지역의 결과는 시흥지역 응답자 369명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 화성지역의 결과는 화성지역 응답자 54명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도 표시하였다. 이는 지역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Ⅲ. 조사결과 및 분석

1. 시화호의 대표 이미지

‘시화호라는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937명 중 ‘방조제’를 꼽은 사람이 637명으로 68%이고, 뒤이어 ‘호수’ 575명(61%), ‘바다’ 492명(53%), ‘조력발전소’ 486명(52%), ‘수질’ 433명(46%), 철새(43%), 공단(41%) 순이다. 가장 적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농촌공사(5%), 농지(6%), 해수부(8%), 마라톤(9%), 섬(11%), 유역의 원주민(11%) 순이었다. 시화호는 성공한 개발반대 운동으로도 유명한만큼 환경단체(27%)와 환경개선노력(37%)을 떠올린 사람도 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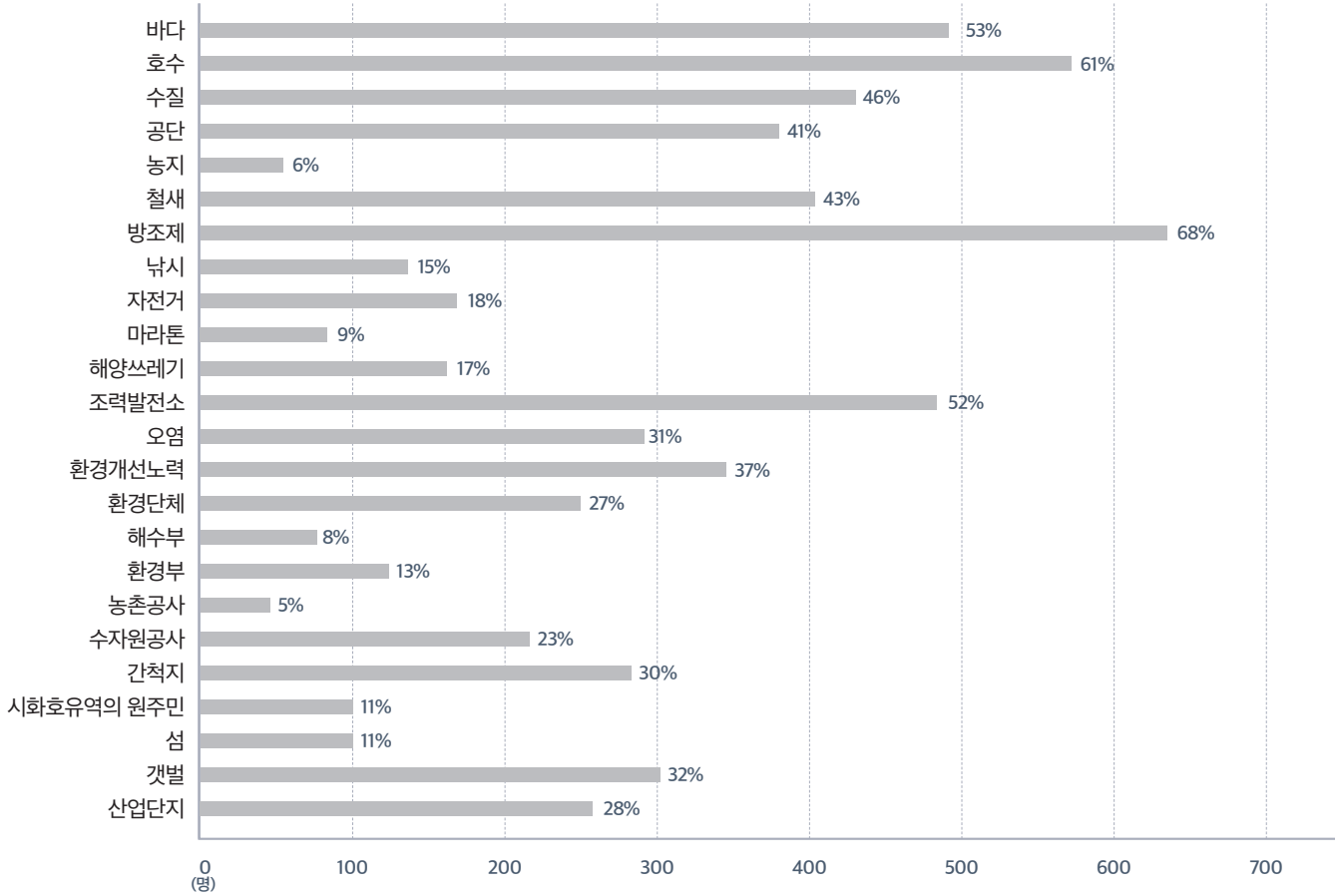


그림 3. 시화호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안산의 경우 전체 응답자 514명 중 ‘방조제’가 떠오른다는 사람이 377명으로 안산 응답자 중 73%이고 ‘조력발전소’ 321명(63%), ‘호수’ 313명(61%), ‘바다’ 289명(56%), ‘수질’ 257명(50%) 순이다. 시흥의 경우 전체 응답자 369명 중 ‘호수’가 떠오른다는 사람이 226명으로 시흥 응답자 중 61%이고 방조제’가 225명(61%), ‘바다’ 184(50%), ‘수질’146명(40%), ‘조력발전소’ 146명(40%) 순이다. 화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54명 중 ‘호수’가 떠오른다는 사람이 36명으로 시흥 응답자 중 67%이고 ‘방조제’35명(65%), ‘수질’30명(56%), ‘간척지’ 23명(43%), ‘오염’ 20명(37%) 순이다.

표 3. 시화호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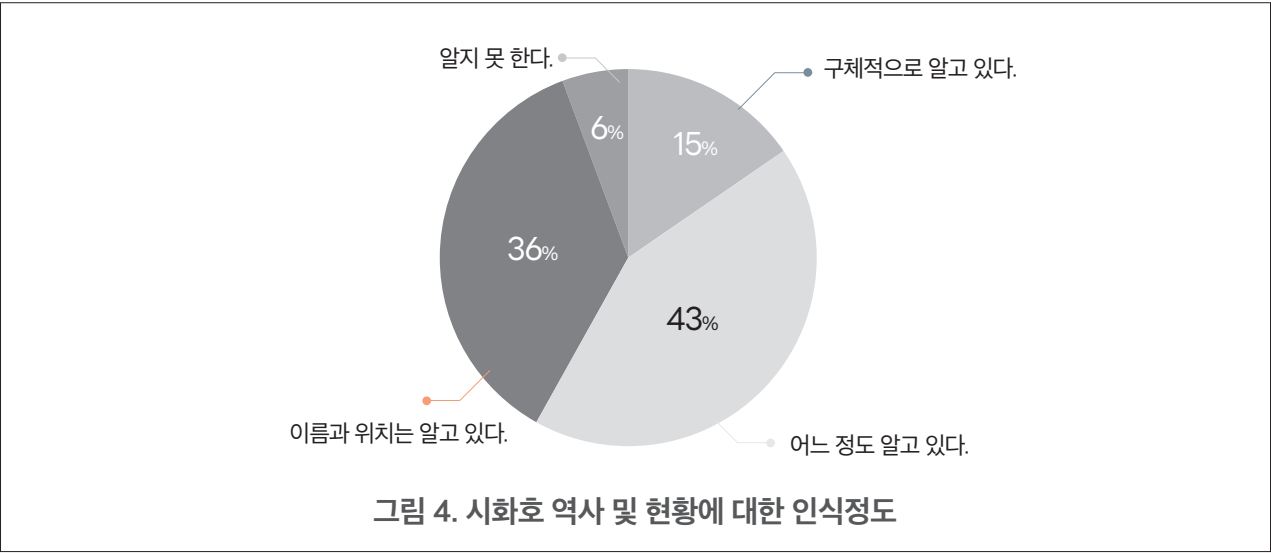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바다	492	53%	289	56%	184	50%	19	35%
호수	575	61%	313	61%	226	61%	36	67%
수질	433	46%	257	50%	146	40%	30	56%
공단	383	41%	228	44%	140	38%	15	28%
농지	55	6%	32	6%	20	5%	3	6%
철새	405	43%	249	49%	137	37%	19	35%
방조제	637	68%	377	73%	225	61%	35	65%
낚시	138	15%	67	13%	70	19%	1	2%
자전거	169	18%	110	21%	56	15%	3	6%
마라톤	84	9%	53	10%	29	8%	2	4%
해양쓰레기	162	17%	90	18%	67	18%	5	9%
조력발전소	486	52%	321	63%	146	40%	19	35%
오염	293	31%	176	34%	97	26%	20	37%
환경개선노력	347	37%	194	38%	140	38%	13	24%
환경단체	252	27%	160	31%	79	21%	13	24%
해수부	76	8%	37	7%	35	9%	4	7%
환경부	125	13%	64	12%	56	15%	5	9%
농촌공사	46	5%	32	6%	12	3%	2	4%
수자원공사	217	23%	131	26%	77	21%	9	17%
간척지	283	30%	161	31%	99	27%	23	43%
시화호 유역의 원주민	100	11%	60	12%	33	9%	7	13%
섬	107	11%	60	12%	42	11%	5	9%
갯벌	302	32%	189	37%	99	27%	14	26%
산업단지	258	28%	146	28%	95	26%	17	31%
응답없음	0	0%	1	0%	-	-	-	-

2. 시화호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인식수준

‘시화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00명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고, ‘시화호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다.’ 399명(36%),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44명(15%), ‘시화호에 대해 알지 못 한다.’ 51명(6%), ‘응답 없음’ 3명(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144명(15%)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6%)보다 많으며, 안산, 시흥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크고, 화성은 이름과 위치 정도만 아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컸다.

표 4. 시화호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인식정도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44	15%	80	16%	54	15%	10	19%
시화호가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00	43%	223	43%	158	43%	19	35%
시화호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다.	339	36%	181	35%	137	37%	21	39%
시화호에 대해 알지 못 한다.	51	6%	27	5%	20	5%	4	7%
응답 없음	3	0%	3	1%	-	-	-	-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23명(43%), ‘시화호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다.’ 181명(35%),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80명(16%), ‘시화호에 대해 알지 못 한다.’ 27명(5%), ‘응답 없음’ 3명(1%)이고, 시흥의 경우 ‘시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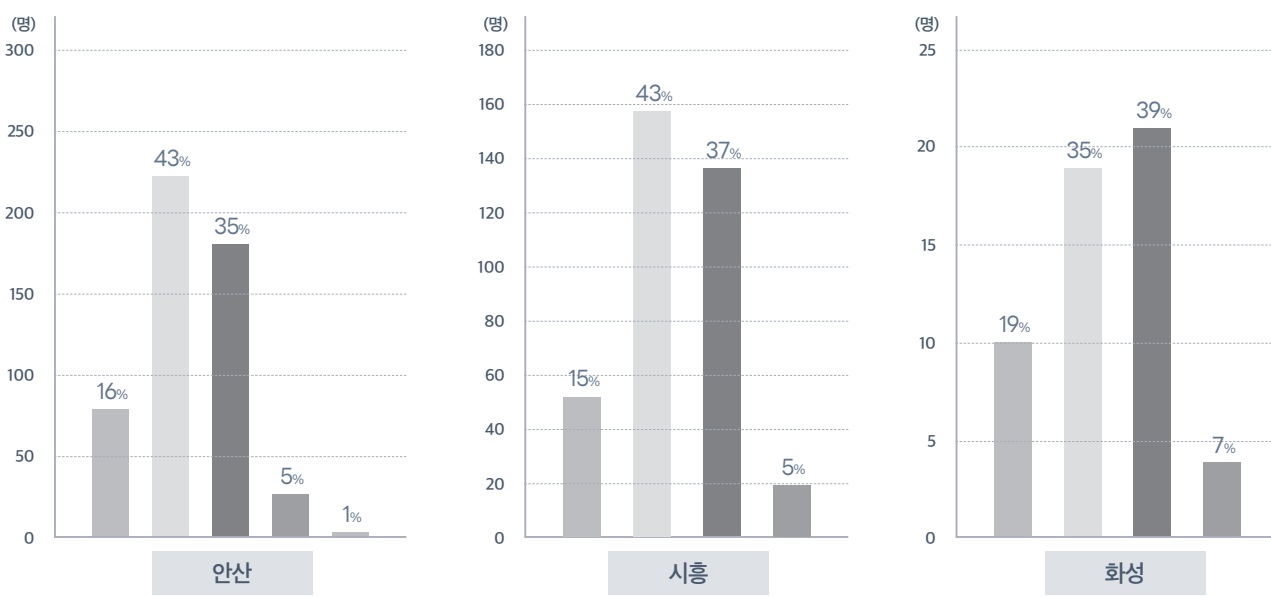


그림 5. 시화호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인식정도(안산, 시흥, 화성)

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58명(43%), ‘시화호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다.’ 137명(37%),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54명(15%), ‘시화호에 대해 알지 못 한다.’ 20명(5%), 화성의 경우 ‘시화호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다.’ 21명(39%), ‘시화호가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9명(35%), ‘시화호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0명(19%), ‘시화호에 대해 알지 못 한다.’ 4명(7%)의 순이다. 지역별로도 3지역 모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많다.

3. 시화호 유역 방문 경험

‘시화호나 시화호 유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가본 곳은 대부도로 응답자의 862명(92%)이 방문경험이 있었고, 시화호는 820명(88%), 안산갈대습지 670명(72%), 시흥 거북섬 658명(70%), 조력발전소 640명(68%)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방문경험이 있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본 곳은 화성 형도로 응답자 중 145명(15%) 만이 방문 경험이 있고, 우음도 시화호환경학교가 177명(18.9%), 화성 어도 182명(19.4%), 우음도 지질공원(에코락)이 184명(19.6%), 우음도전망대 239명(25.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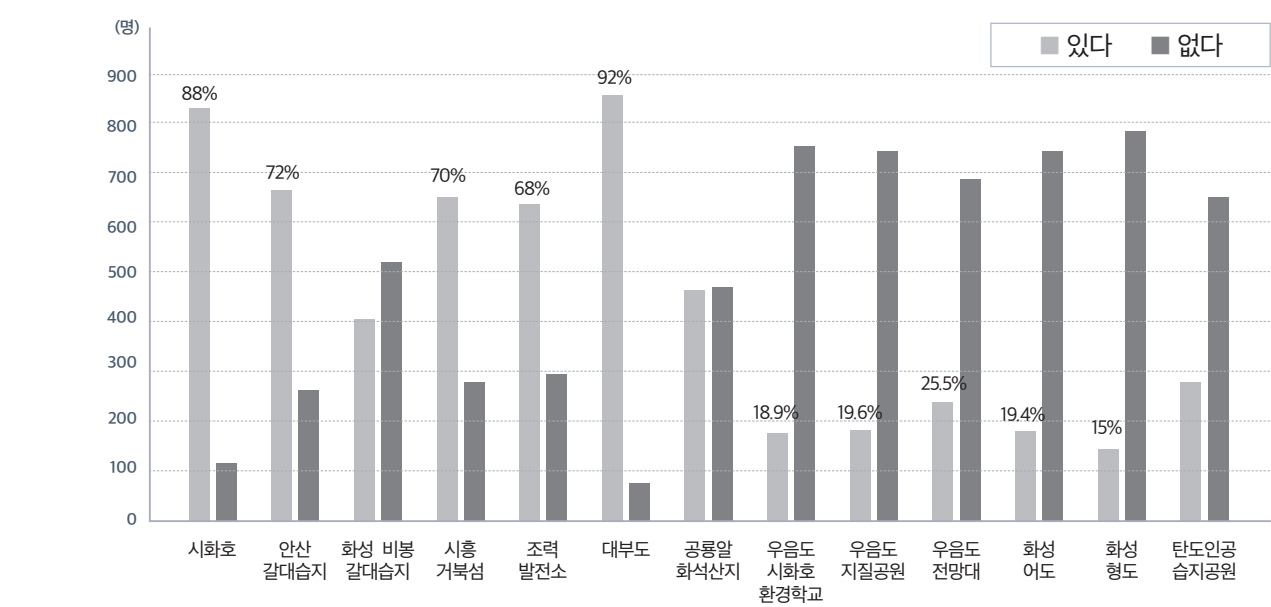


그림 6. 시화호 유역 방문경험

지역별로는 안산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본 곳은 대부도, 시화호, 안산갈대습지 순이고, 시흥의 경우는 시화호, 대부도, 시흥 거북섬, 화성의 경우 대부도, 시화호, 공룡알화석산지 순으로 대부도와 시화호 방문 경험은 공동이었으나 3순위는 각각 자신들의 지역 내의 장소인 안산갈대습지, 시흥 거북섬, 공룡알화석산지를 많이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가장 적게 가본 곳은 안산은 화성 형도, 화성 어도, 우음도 지질공원, 시흥은 화성 형도, 우음도 시화호환경학교, 우음도 지질공원, 화성은 화성 형도와 어도, 시흥 거북섬 순이었다. 3지역 모두 시화호 남측간척지의 화성시의 장소들을 방문한 경험이 적었다.

표 5. 시화호 유역 방문경험

응답내용	전체		안산		시흥		화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시화호	820	116	453	60	326	43	41	13
안산 갈대습지	670	266	441	72	205	164	24	30
화성 비봉갈대습지	409	525	233	278	138	231	38	16
시흥 거북섬	658	279	354	160	290	79	14	40
조력발전소	640	296	389	124	228	141	23	31
대부도	862	75	492	22	325	44	45	9
공룡알화석산지	465	470	276	236	149	220	40	14
우음도시화호환경학교	177	756	97	413	60	309	20	34
우음도지질공원	184	748	87	422	73	296	24	30
우음도전망대	239	693	123	386	90	279	26	28
화성 어도	182	750	86	423	85	284	11	43
화성 형도	145	788	75	435	59	310	11	43
탄도인공습지공원	279	655	157	354	105	264	17	37

4. 시화호관련 활동과 경험

‘시화호에서의 활동이나 경험을 모두 골라 주세요.’라는 질문에는 ‘경관 관람’이 719명(77%)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교육 체험(갯벌체험, 탐조활동 등)’이 352명(38%), ‘생태관광’ 283명(30%), ‘트래킹 및 도보체험’ 254명(27%), ‘환경 정화 활동’ 239명(26%)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참여활동은 캠핑 56명(6%), 낚시 및 수산물 채취 85명(9%), 음식체험 196명(21%)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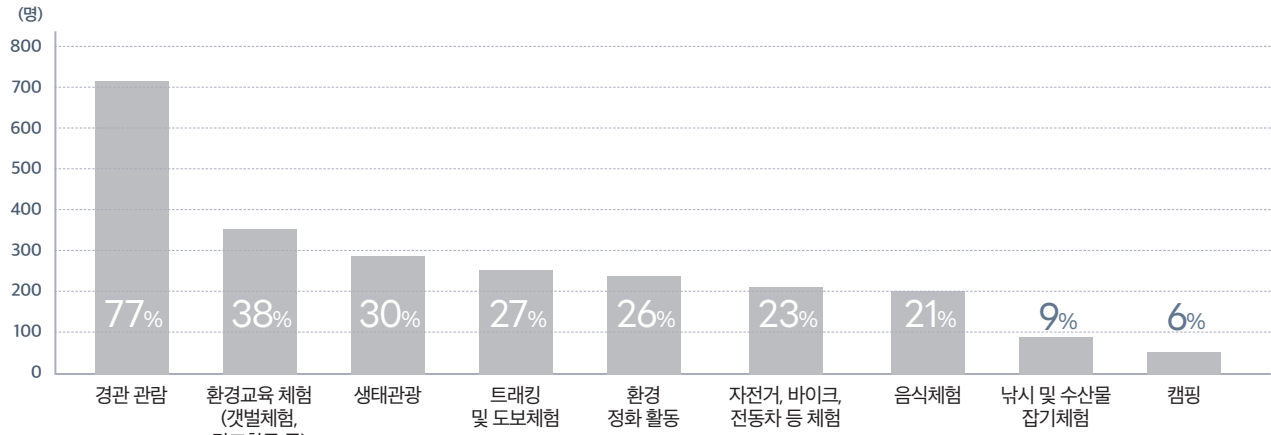


그림 7. 시화호 관련 활동과 경험 내용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경관 관람’ 403명(78%), ‘환경교육 체험(갯벌체험, 탐조활동 등)’ 193명(38%), ‘트래킹 및 도보체험’ 155명(30%), ‘생태관광’ 155명(30%), ‘환경 정화 활동’ 147명(29%) 순이 었고, 시흥의 경우 ‘경관 관람’ 275명(75%), ‘환경교육 체험(갯벌체험, 탐조활동 등)’ 134명(36%), ‘생태관광’ 103명(28%), ‘자전거, 바이크, 전동차 등 체험’ 95명(26%), ‘음식체험’ 88명(24%)의 순이며, 화성의 경우 ‘경관 관람’ 41명(76%), ‘환경교육 체험(갯벌체험, 탐조활동 등)’ 25명(46%), ‘생태관광’ 25명(46%), ‘트래킹 및 도보체험’ 16명(30%), ‘환경 정화 활동’ 12명(22%)의 순이었다.

표 6. 시화호 관련 활동과 경험 내용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경관 관람	719	77%	403	78%	275	75%	41	76%
자전거, 바이크, 전동차 등 체험	211	23%	110	21%	95	26%	6	11%
환경교육 체험(갯벌체험, 탐조활동 등)	352	38%	193	38%	134	36%	25	46%
환경 정화 활동	239	26%	147	29%	80	22%	12	22%
음식체험	196	21%	102	20%	88	24%	6	11%
트래킹 및 도보체험	254	27%	155	30%	83	22%	16	30%
낚시 및 수산물 잡기체험	85	9%	41	8%	43	12%	1	2%
생태관광	283	30%	155	30%	103	28%	25	46%
캠핑	56	6%	34	7%	21	6%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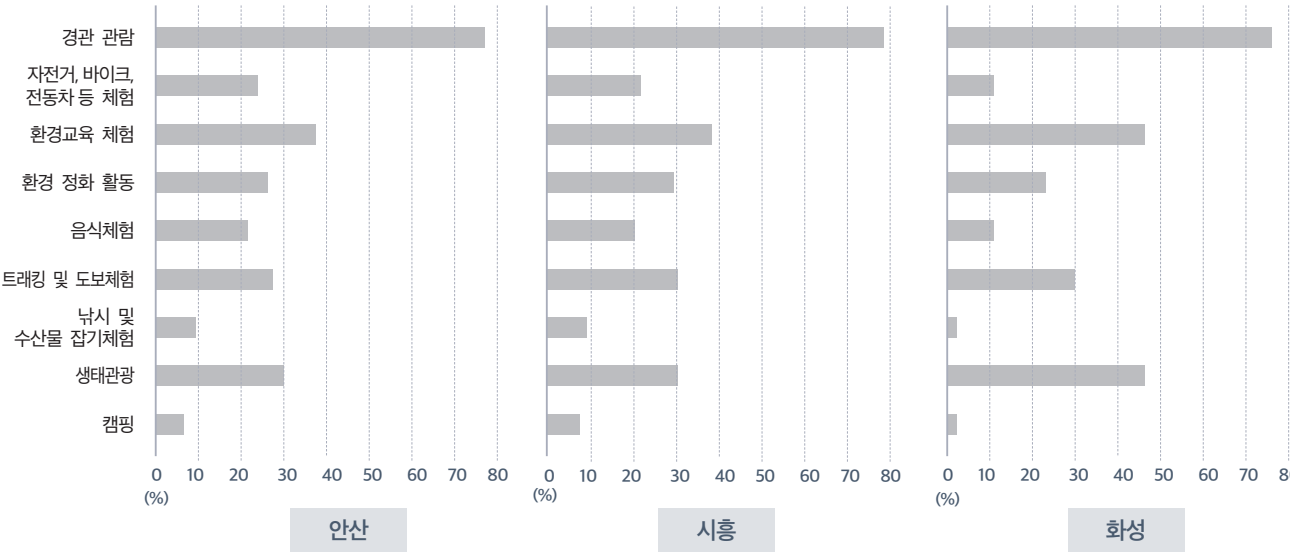


그림 8. 시화호 관련 활동과 경험 내용(안산, 시흥,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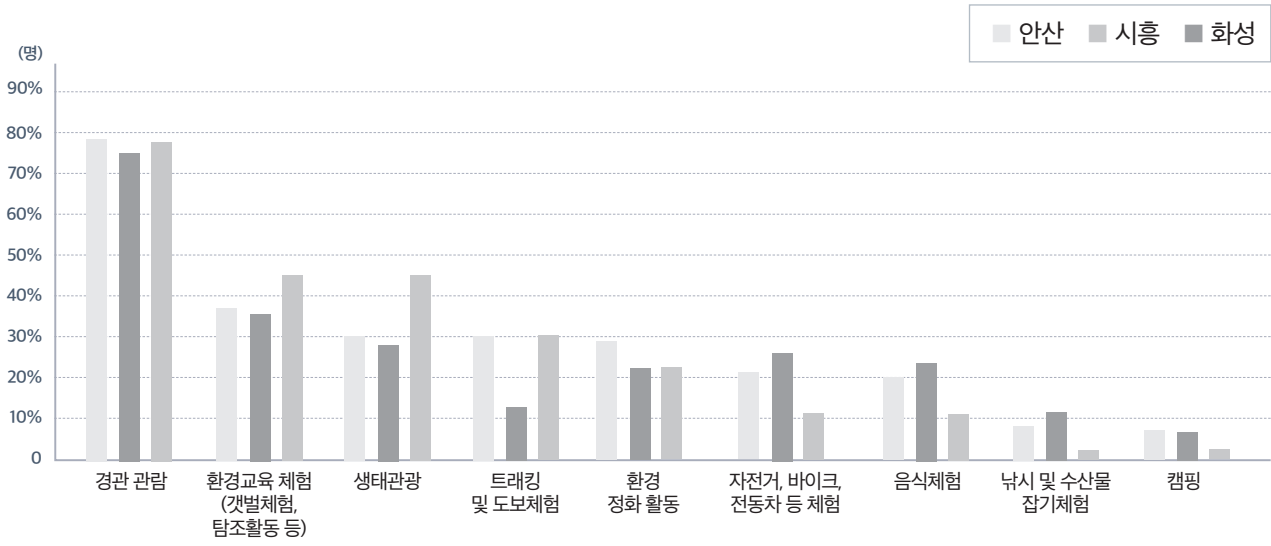


그림 9. 시화호 관련 활동과 경험(지역별 비교)

5. 방조제 완공 후 환경변화 인식정도

‘올해는 방조제가 완공되어 시화호가 만들어진지 30년이 된 해입니다. 시화호 방조제 건설 이후 초기의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 937명 중 646명(69%)이, ‘간척지에 공단이 조성된 초기 대기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하게 발생했었다.’에 대해서는 580명(62%), ‘간척지 건설로 갯벌이 드러나면서 공룡알화석산지가 발견되었다.’에 대해서는 346명(37%), ‘방조제 건설 초기 시화호 내해에 녹조현상과 해파리 대량번성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15명(34%), ‘사리포구, 성곡동, 우음도를 비롯한 주변의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에 대해서는 265명(28%), ‘간척지 염해피해로 주변의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에 대해서는 155명(17%)이 알고 있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수질악화 (69%), 대기오염과 악취(62%)에 대한 사실 뿐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포도농가 염해피해(17%), 원주민 생계터전 손실(28%)이었다. 이는 시화호 인식수준 응답 중 시화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15%)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43%)은 모두 544명으로 58%라는 점과 비교해 살펴보면 58%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주로 ‘수질악화’와 ‘대기오염과 악취’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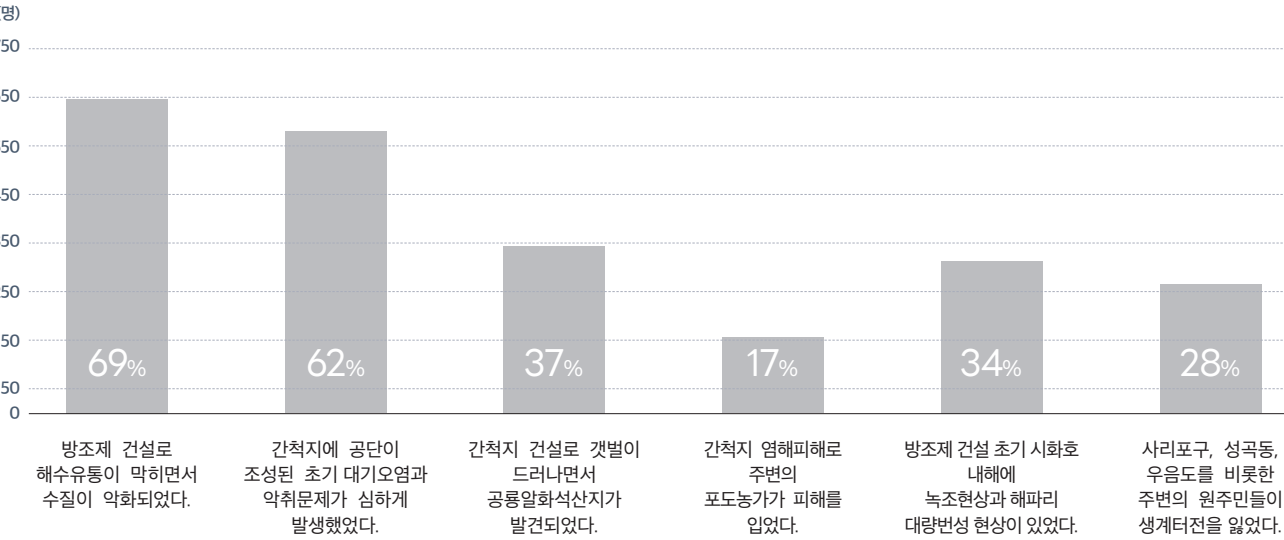


그림 10. 방조제 완공 후 환경변화 인식정도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372명(72%), ‘간척지에 공단이 조성된 초기 대기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하게 발생했었다.’ 338명(66%), ‘간척지 건설로 갯벌이 드러나면서 공룡알화석산지가 발견되었다.’ 199명(39%), ‘사리포구, 성곡동, 우음도를 비롯한 주변의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173명(34%), ‘방조제 건설 초기 시화호 내해에 녹조현상과 해파리 대량번성 현상이 있었다.’ 170명(33%), ‘간척지 염해피해로 주변의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75명(15%)의 순이다.

시흥의 경우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230명(62%), ‘간척지에 공단이 조성된 초기 대기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하게 발생했었다.’ 205명(56%), ‘방조제 건설 초기 시화호 내해에 녹조현상과 해파리 대량번성 현상이 있었다.’ 128명(35%), ‘간척지 건설로 갯벌이 드러나면서

공룡알화석산지가 발견되었다.’ 118명(32%), ‘사리포구, 성곡동, 우음도를 비롯한 주변의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74명(20%), ‘간척지 염해피해로 주변의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71명(19%)의 순이다.

화성의 경우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44명(81%), ‘간척지에 공단이 조성된 초기 대기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하게 발생했었다.’ 37명(69%), ‘간척지 건설로 갯벌이 드러나면서 공룡알화석산지가 발견되었다.’ 29명(54%), ‘사리포구, 성곡동, 우음도를 비롯한 주변의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18명(33%), ‘방조제 건설 초기 시화호 내해에 녹조현상과 해파리 대량번성 현상이 있었다.’ 17명(31%), ‘간척지 염해피해로 주변의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9명(17%)의 순이다.

지역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안산의 경우 수질악화(72%)와 대기오염과 악취(66%), 시흥 역시 수질악화(62%)와 대기오염과 악취(56%)이며, 화성은 수질악화(81%)와 대기오염과 악취(69%) 외에도 공룡알화석산지 발견(54%)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지역별로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안산과 화성은 ‘포도농가 피해’와 ‘내해녹조 및 해파리번성’이며, 시흥은 ‘포도농가 피해’와 ‘원주민 생계터 손실’의 순서이다.

표 7. 방조제 완공 후 환경변화 인식정도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646	69%	372	72%	230	62%	44	81%
간척지에 공단이 조성된 초기 대기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하게 발생했었다.	580	62%	338	66%	205	56%	37	69%
간척지 건설로 갯벌이 드러나면서 공룡알화석산지가 발견되었다.	346	37%	199	39%	118	32%	29	54%
간척지 염해피해로 주변의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155	17%	75	15%	71	19%	9	17%
방조제 건설 초기 시화호 내해에 녹조현상과 해파리 대량번성 현상이 있었다.	315	34%	170	33%	128	35%	17	31%
사리포구, 성곡동, 우음도를 비롯한 주변의 원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265	28%	173	34%	74	20%	1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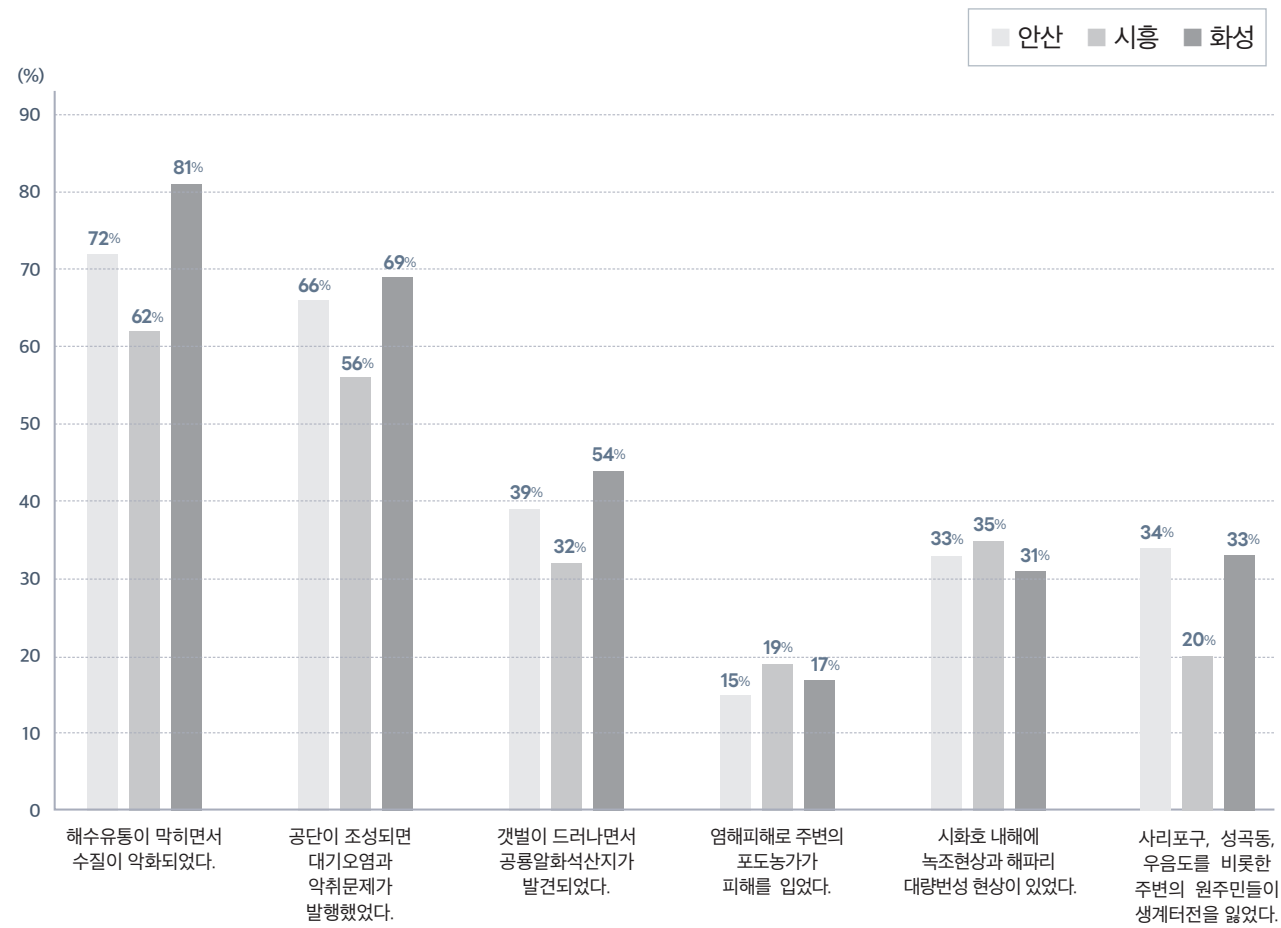


그림 11. 방조제 완공 후 환경변화 인식정도

6. 현재 시화호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방조제 완공 후 30년 동안 시화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환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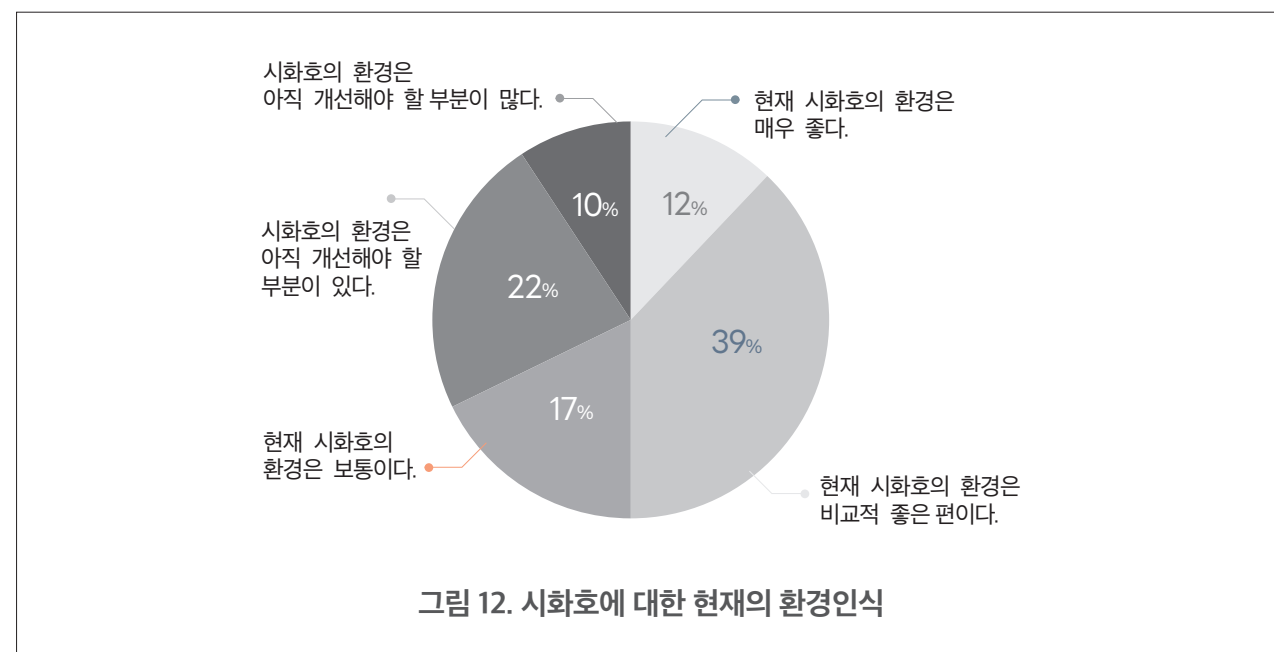


그림 12. 시화호에 대한 현재의 환경인식

선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호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에는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360명(39%)가 가장 많았고,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210명(22%),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보통이다.’ 158명(17%),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매우 좋다.’ 111명(12%),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90명(10%) 순으로, ‘좋다’는 의견이 51%로 ‘아직 개선 할 부분이 있다(32%)’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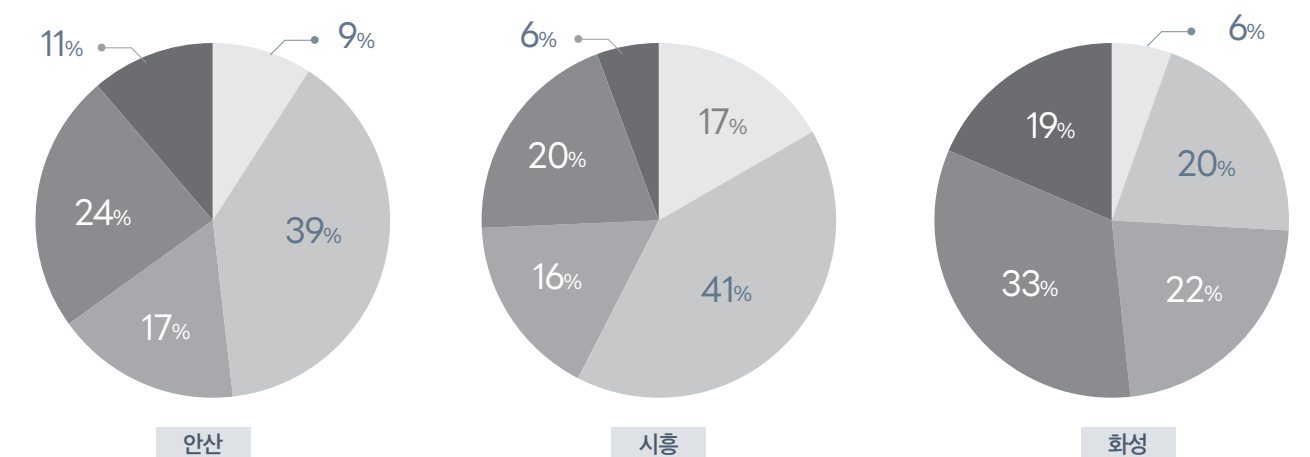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198명(39%),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119명(24%),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보통이다.’ 86명(17%),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57명(11%),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매우 좋다.’ 46명(9%)으로 ‘좋다’는 의견이 48%로 ‘아직 개선 할 부분이 있다(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흥의 경우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151명(41%),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73명(20%),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매우 좋다.’ 62명(17%),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보통이다.’ 60명(16%),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23명(6%) 순으로, ‘좋다’는 의견이 58%로 ‘아직 개선 할 부분이 있다(26%)’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성의 경우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18명(33%),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보통이다.’ 12명(22%),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11명(20%),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10명(19%),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매우 좋다.’ 3명(6%)으로, ‘좋다’는 의견이 26%로 ‘아직 개선 할 부분이 있다(52%)’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8. 시화호에 대한 현재의 환경인식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매우 좋다.	111	12%	46	9%	62	17%	3	6%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360	39%	198	39%	151	41%	11	20%
현재 시화호의 환경은 보통이다.	158	17%	86	17%	60	16%	12	22%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210	22%	119	24%	73	20%	18	33%
시화호의 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90	10%	57	11%	23	6%	10	19%



안산과 시흥 시민들은 시화호의 현재 상황을 비교적 좋다고 인지하는 반면 화성의 시민들은 개선할 부분이 더 많다고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도시가 위치한 북측간척지(안산, 시흥)와 남측간척지(안산, 화성)의 상황의 다름에서 비롯 된 것인지 기타 갯벌상황이나 수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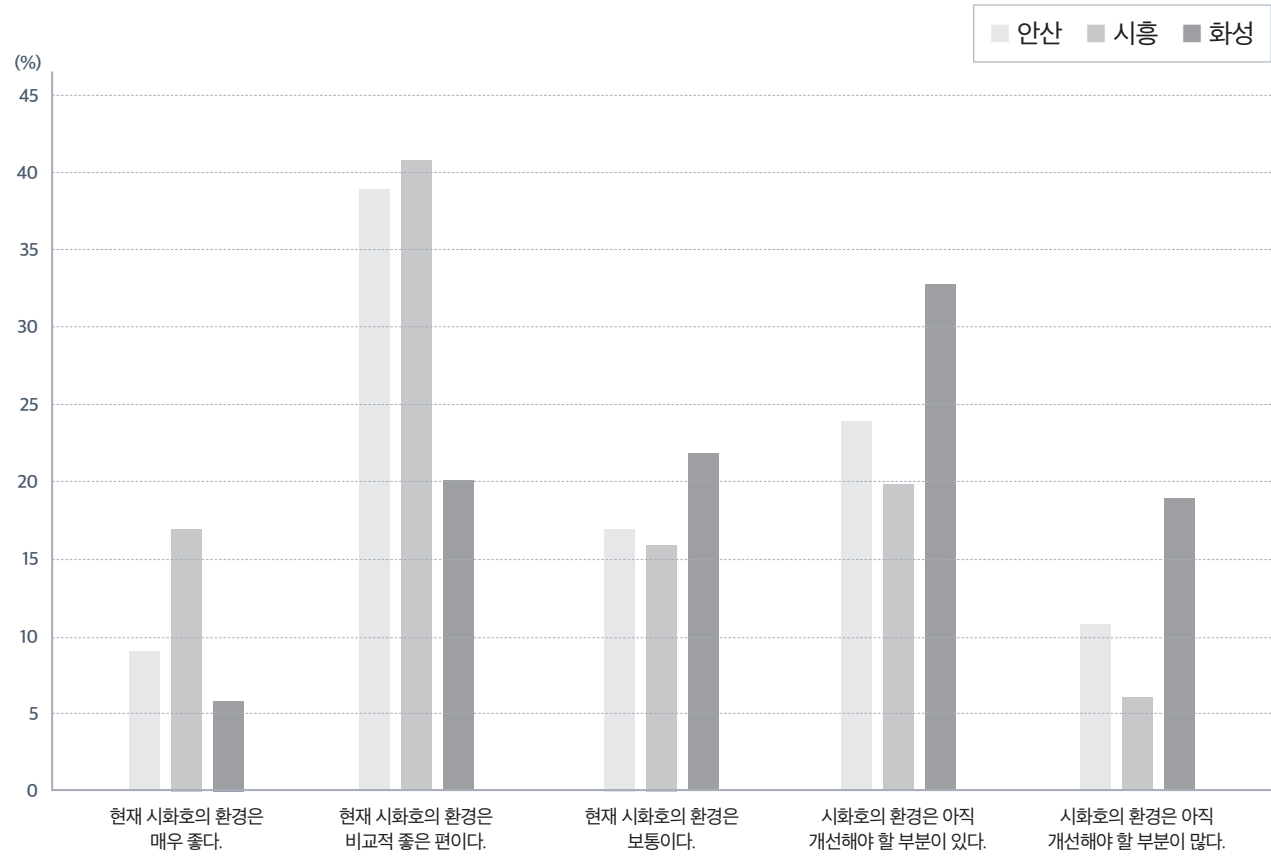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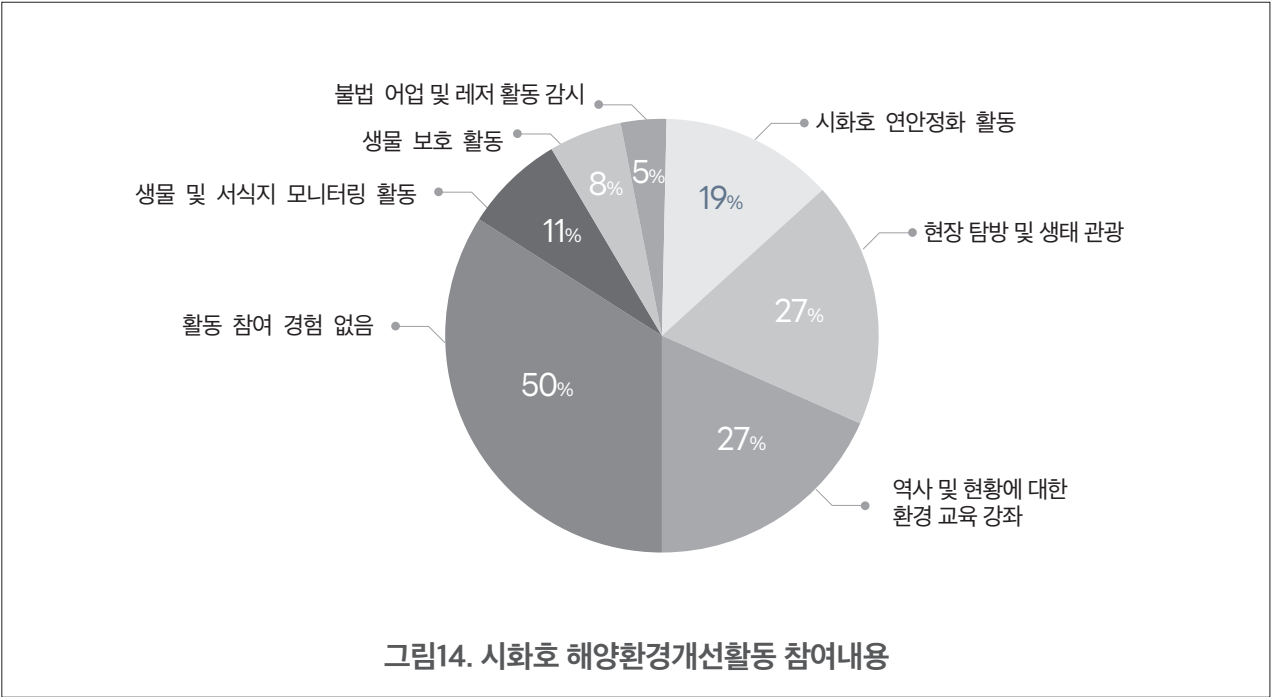


그림 13. 시화호에 대한 현재의 환경인식(지역별 비교)

7. 시화호 해양환경개선활동 참여도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에는 ‘활동 참여 경험 없음’이 464명(5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에 참여가 257명(27%),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참여자가 254명(27%),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74명(19%),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참가자는 107명(11%), ‘생물 보호 활동’ 참가자는 78명(8%),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에 참여한 사람은 44명(5%) 순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활동 참여 경험 없음’ 256명(50%),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146명(28%),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 교육 강좌’ 139명(27%),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111명(22%),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72명(14%), ‘생물 보호 활동’ 49명(10%),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17명(3%) 순이고, 시흥의 경우 ‘활동 참여 경험 없음’ 179명(49%),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 1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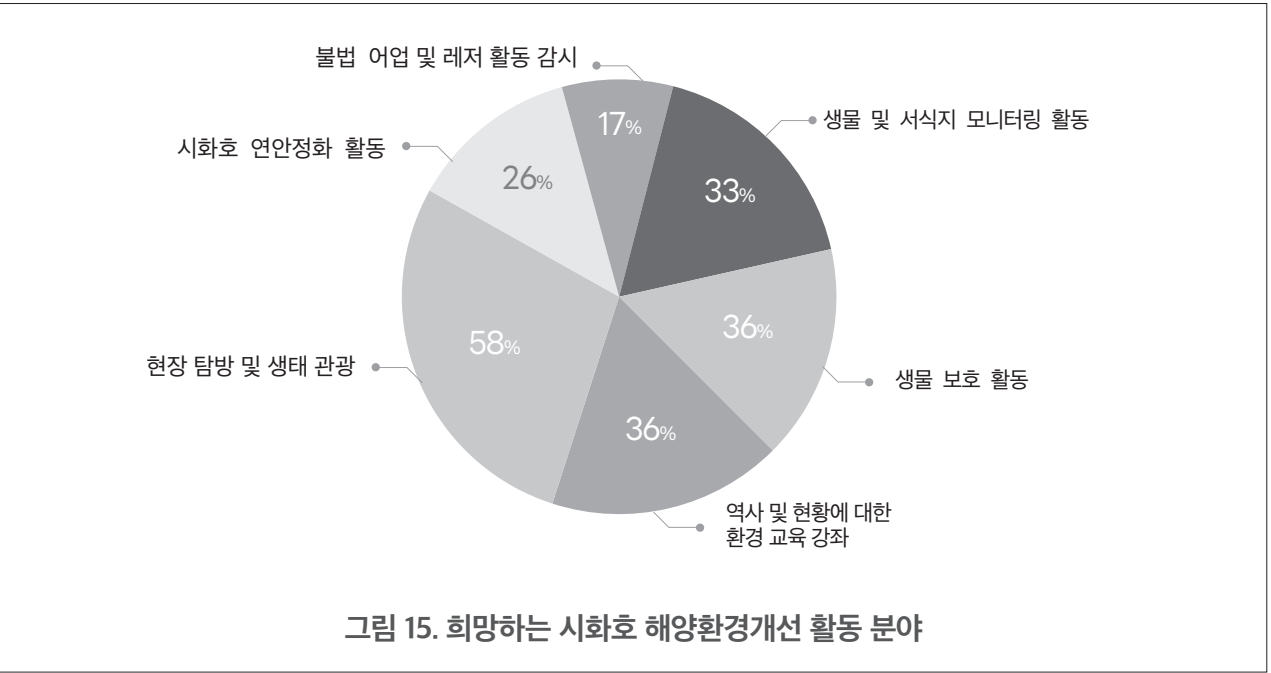
(28%),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87명(24%),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56명(15%), ‘생물 보호 활동’ 27명(7%),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감시’ 26명(7%),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26명(7%) 순이며, 화성의 경우 ‘활동 참여 경험 없음’ 29명(54%),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21명(39%),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 15명(28%),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9명(17%),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7명(13%), ‘생물 보호 활동’ 2명(4%),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1명(2%) 순서 이다. 아주 미미하지만 굳이 지역별 우위를 비교하자면 안산은 타 지역에 비해 연안정화활동과 생물보호활동에 참여한 비율 이 크고, 시흥은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크며, 화성은 생태관광과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크다.

표 9. 시화호 해양환경개선활동 참여내용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	257	27%	139	27%	103	28%	15	28%
현장 탐방 및 생태 관광	254	27%	146	28%	87	24%	21	39%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174	19%	111	22%	56	15%	7	13%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44	5%	17	3%	26	7%	1	2%
생물 보호 활동	78	8%	49	10%	27	7%	2	4%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107	11%	72	14%	26	7%	9	17%
활동 참여 경험 없음	464	50%	256	50%	179	49%	29	54%

8. 희망하는 시화호 해양환경개선활동

‘향후 참여해 보고 싶은 시화호 환경개선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547명(58%)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하였다. 다른 답변으로는 ‘생물 보호 활동’ 337명(36%)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 335명(36%),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305명(33%),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248명(26%),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159명(17%) 순서이다. 현장방문 및 생태관광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고, 생물관련 활동이 36%, 33%로 환경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311명(61%),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강좌’ 192명(37%), ‘생물 보호 활동’ 188명(37%),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184명(36%),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137명(27%),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70명(14%)의 순이고, 시흥의 경우 ‘현장탐방 및 생태 관광’ 199명(54%), ‘생물 보호 활동’ 128명(35%),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교육 강좌’ 118명(32%),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104명(28%),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96명(26%),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81명(22%)의 순이며, 화성의 경우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 37명(69%),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 교육강좌’ 25명(46%), ‘생물 보호 활동’ 21명(39%),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17명(31%),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15명(28%), ‘불법 어업 및 레저활동 감시’ 8명(15%) 순이었다.

표 10. 희망하는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활동 분야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 교육 강좌	335	36%	192	37%	118	32%	25	46%
현장 탐방 및 생태 관광	547	58%	311	61%	199	54%	37	69%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248	26%	137	27%	96	26%	15	28%
불법 어업 및 레저 활동 감시	159	17%	70	14%	81	22%	8	15%
생물 보호 활동	337	36%	188	37%	128	35%	21	39%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305	33%	184	36%	104	28%	17	31%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활동 참여 경험과 향후 희망하는 참여 분야를 비교해 보면 가장 차이가 큰 것은 ‘현장탐방 및 생태관광’으로 31%가 차이가 나고, ‘생물 보호 활동’이 28%,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이 22% 차이이다. 생태관광 못지 않게 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생물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의 생태관광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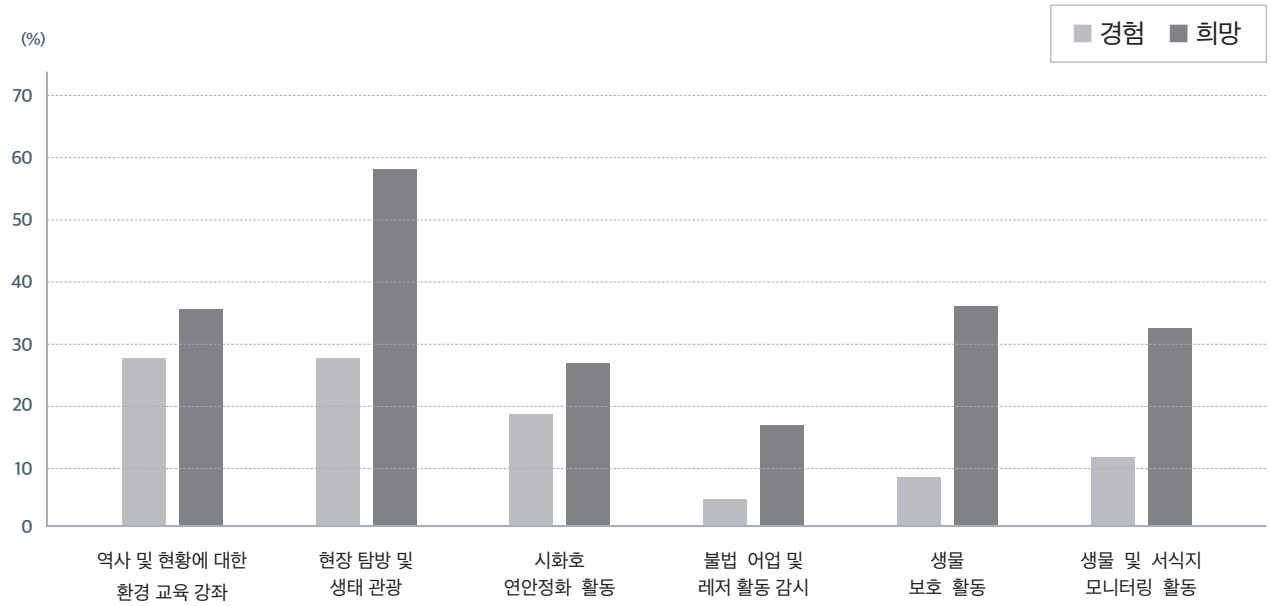


그림 16. 시화호 해양환경개선활동 경험과 희망 분야 비교

표 11. 시화호 해양환경개선활동 경험과 희망 분야 비교

	경험	희망	희망-경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환경 교육 강좌	27%	36%	9
현장 탐방 및 생태 관광	27%	58%	31
시화호 연안정화 활동	19%	26%	7
불법 어업 및 레저 활동 감시	5%	17%	12
생물 보호 활동	8%	36%	28
생물 및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11%	33%	22

9. 지속가능한 시화호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시화호를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가지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는‘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30명(35%), ‘물길과 갯벌이 살아 있는 생태도시 개발’ 326명(35%), ‘시화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319명(34%), ‘시화호에 오염부담을 주지않는 개발과 관리’ 316명(34%)순이었다. 시화호유역의 시민들은 시화호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계 및 생물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물길과 갯벌이 살아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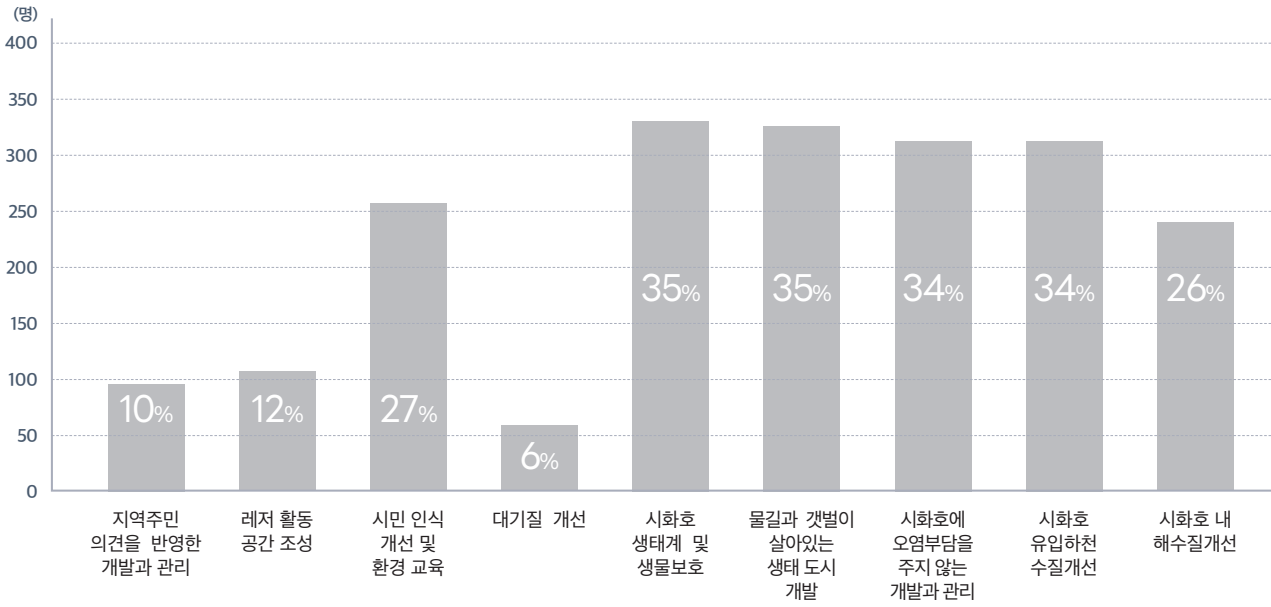


그림 17. 시화호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보호’ 193명(38%), ‘물길과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개발’ 184명(36%), ‘시화호에 오염부담을 주지않는 개발과 관리’ 180명(35%), ‘시화호 유입하천 수질 개선’ 176명(34%)의 순이고, 시흥은 ‘시화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121명(33%), ‘물길과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개발’ 121명(33%), ‘시화호에 오염부담을 주지않는 개발과 관리’ 119명(32%),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보호’ 110명(30%) 순이며, 화성의 경우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보호’ 27명(50%), ‘시화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22명(41%), ‘물길과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개발’ 21명(39%) 순이었다.

표 12. 시화호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시화호 내 해수질 개선	241	26%	131	25%	95	26%	15	28%
시화호 유입 하천 수질개선	319	34%	176	34%	121	33%	22	41%
시화호에 오염부담을 주지 않는 개발과 관리	316	34%	180	35%	119	32%	17	31%
물길과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개발	326	35%	184	36%	121	33%	21	39%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보호	330	35%	193	38%	110	30%	27	50%
대기질 개선	59	6%	23	4%	33	9%	3	6%

시민 인식 개선 및 환경 교육	255	27%	151	29%	88	24%	16	30%
레저 활동 공간 조성	109	12%	55	11%	47	13%	7	13%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과 관리	96	10%	58	11%	32	9%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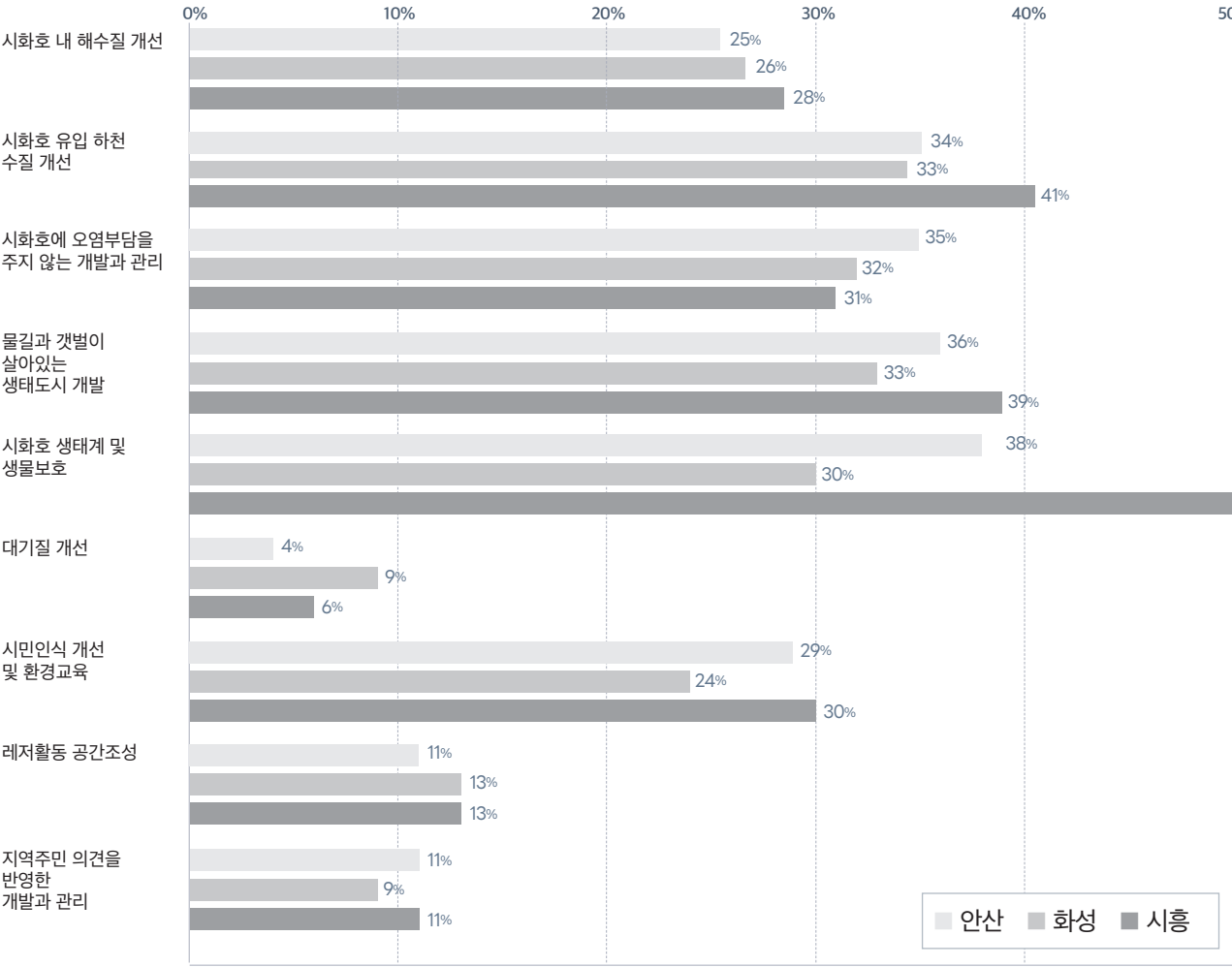


그림 18. 시화호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지역별 비교)

10. 시화호 유역의 법정보호종 인식정도

‘다음은 시화호유역에 살고 있는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종 생물들 입니다. 알고 계신 생물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수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545명 (58%)으로 가장 많았고, ‘매’ 504명(54%), ‘저어새’ 440명(47%), ‘샬’ 406명(43%), ‘고니’ 405명(43%), ‘노랑부리백로’ 330명(35%)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인식하는 생물은 수달(58%)과 매(54%)로 2종, 응답자 중 40%이상이 인식하는 생물은 전체 43종 중 5종으로 수달, 매, 저어새(47%), 샬(43%), 고니(43%)이다. 지역별로는 안산의 경우 ‘수달’ 339명(69%), ‘매’ 269명(55%), ‘노랑부리백로’ 253명(52%), ‘저어새’ 241명(49%), ‘샬’ 237명(48%) 순으로 알고 있고, 시흥의 경우 ‘매’ 203명(55%), ‘수달’ 169명(46%), ‘저어새’ 166명(45%), ‘고니’ 147명(40%), ‘샬’ 130명(35%)순으로 화성의 경우 ‘샬’ 39명(72%), ‘수달’ 37명(69%), ‘저어새’ 33명(61%), ‘매’ 32명(59%), ‘검은머리물떼새’ 31명(57%), ‘고니’ 31명(57%) 순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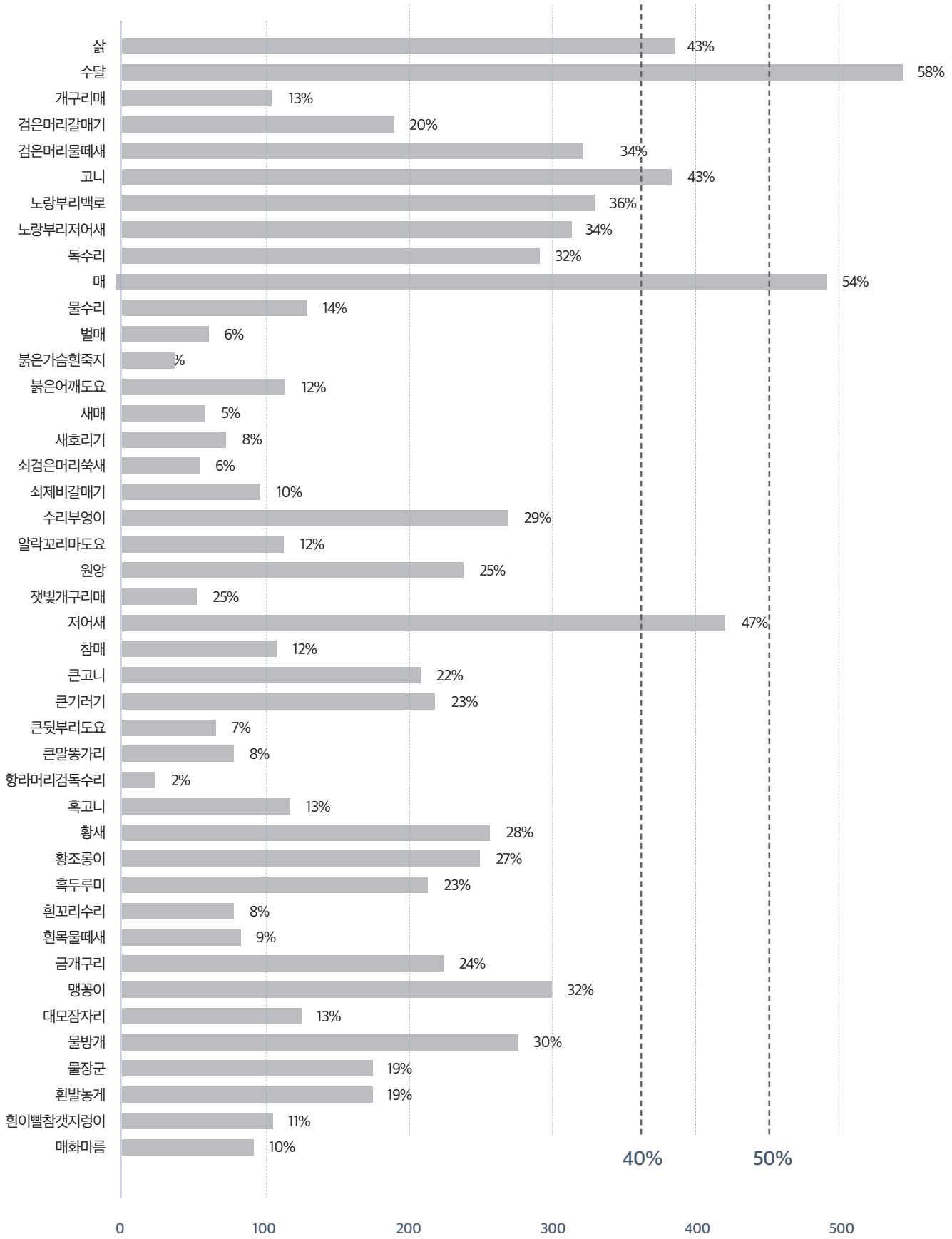


그림 19. 법정보호종에 대한 인지 정도

표 13. 법정보호종에 대한 인지 정도

응답내용		응답수							
		전체		안산		시흥		화성	
포유류	살	406	43%	237	48%	130	35%	39	72%
	수달	545	58%	339	69%	169	46%	37	69%
조류	개구리매	125	13%	57	12%	57	15%	11	20%
	검은머리갈매기	189	20%	94	19%	76	21%	19	35%
	검은머리물떼새	321	34%	196	40%	94	25%	31	57%
	고니	405	43%	227	46%	147	40%	31	57%
	노랑부리백로	330	35%	253	52%	59	16%	18	33%
	노랑부리저어새	314	34%	187	38%	98	27%	29	54%
	독수리	297	32%	173	35%	105	28%	19	35%
	매	504	54%	269	55%	203	55%	32	59%
	물수리	128	14%	60	12%	53	14%	15	28%
	벌매	60	6%	21	4%	30	8%	9	17%
	붉은가슴흰죽지	37	4%	18	4%	12	3%	7	13%
	붉은어깨도요	111	12%	52	11%	37	10%	22	41%
	새매	59	6%	29	6%	23	6%	7	13%
	새호리기	75	8%	39	8%	27	7%	9	17%
	쇠검은머리쑥새	57	6%	35	7%	17	5%	5	9%
	쇠제비갈매기	98	10%	58	12%	31	8%	9	17%
	수리부엉이	270	29%	153	31%	94	25%	23	43%
	알락꼬리마도요	113	12%	64	13%	28	8%	21	39%
	원앙	238	25%	140	29%	83	22%	15	28%
	잣빛개구리매	51	5%	29	6%	15	4%	7	13%
양서·파충류	저어새	440	47%	241	49%	166	45%	33	61%
	참매	108	12%	53	11%	44	12%	11	20%
곤충	큰고니	208	22%	137	28%	55	15%	16	30%
	큰기러기	218	23%	136	28%	68	18%	14	26%
저서 무척추동물	큰뒷부리도요	66	7%	35	7%	19	5%	12	22%
	큰말똥가리	76	8%	39	8%	26	7%	11	20%
식물	항라머리검독수리	23	2%	14	3%	7	2%	2	4%
	흑고니	118	13%	66	13%	41	11%	11	20%
	황새	261	28%	155	32%	86	23%	20	37%
	황조롱이	252	27%	147	30%	84	23%	21	39%
	흑두루미	213	23%	122	25%	74	20%	17	31%
	흰꼬리수리	78	8%	45	9%	25	7%	8	15%
	흰목물떼새	85	9%	50	10%	25	7%	10	19%
	금개구리	226	24%	146	30%	58	16%	22	41%
	맹꽁이	304	32%	180	37%	101	27%	23	43%
	대모잠자리	126	13%	83	17%	28	8%	15	28%
	물방개	278	30%	159	32%	96	26%	23	43%
	물장군	182	19%	108	22%	60	16%	14	26%
	흰발농게	175	19%	100	20%	56	15%	19	35%
	흰이빨참갯지렁이	104	11%	64	13%	32	9%	8	15%
	매화마름	91	10%	55	11%	28	8%	8	15%

조류 부분 만 살펴보면 응답자 절반이상이 인식하는 조류는 매(54%) 뿐으로 전체 조류 33종 중 1종으로 3%이다. 시화호 조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리류와 고니류가 우점종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인식이 시화호 현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학적 상식에 기반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조류분야 인식정도는 안산의 경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인식하는 조류는 ‘매’와 ‘노랑부리백로’(52%)이고, 시흥의 경우 ‘매’뿐이며, 화성의 경우 ‘매’, ‘검은머리물떼새’,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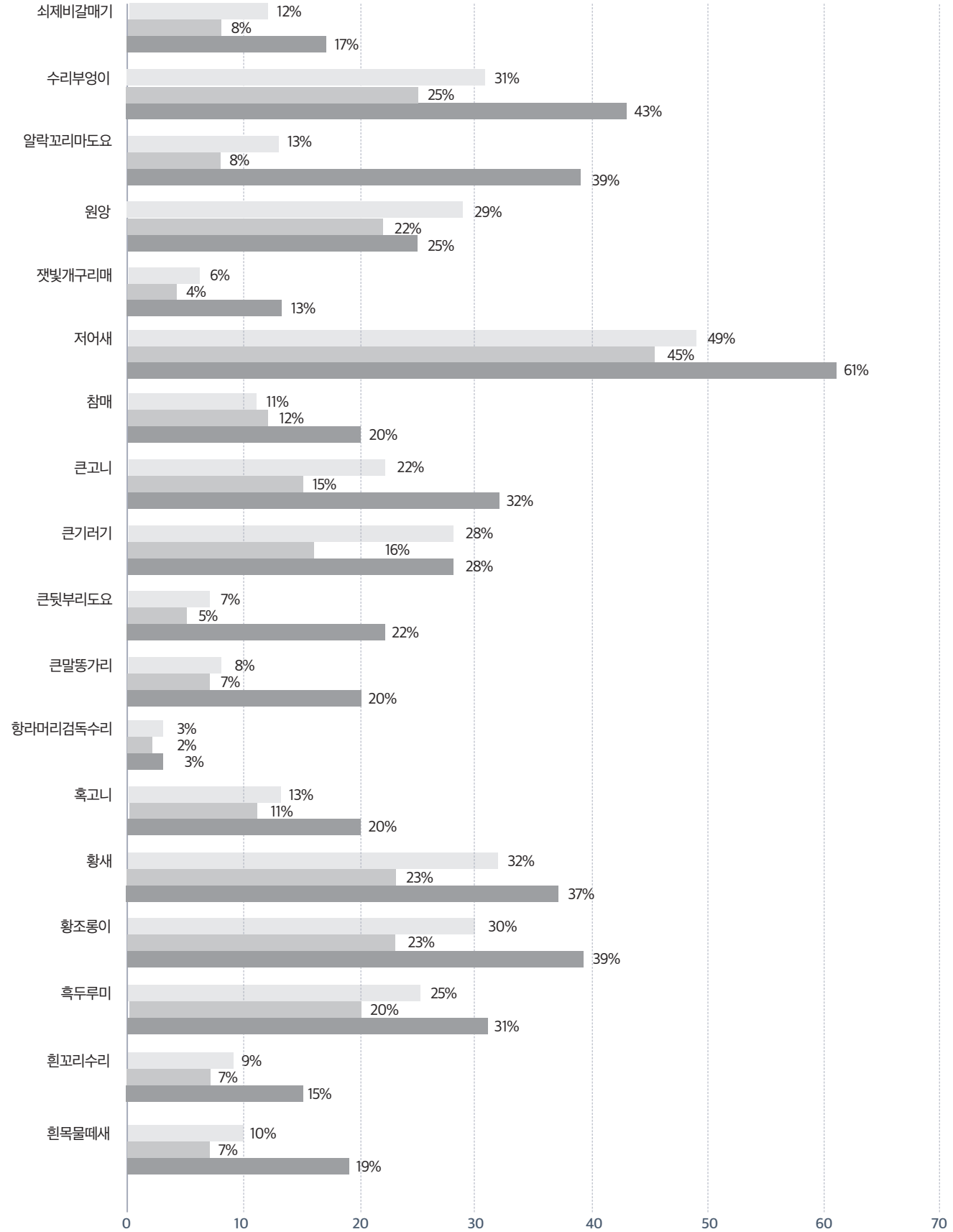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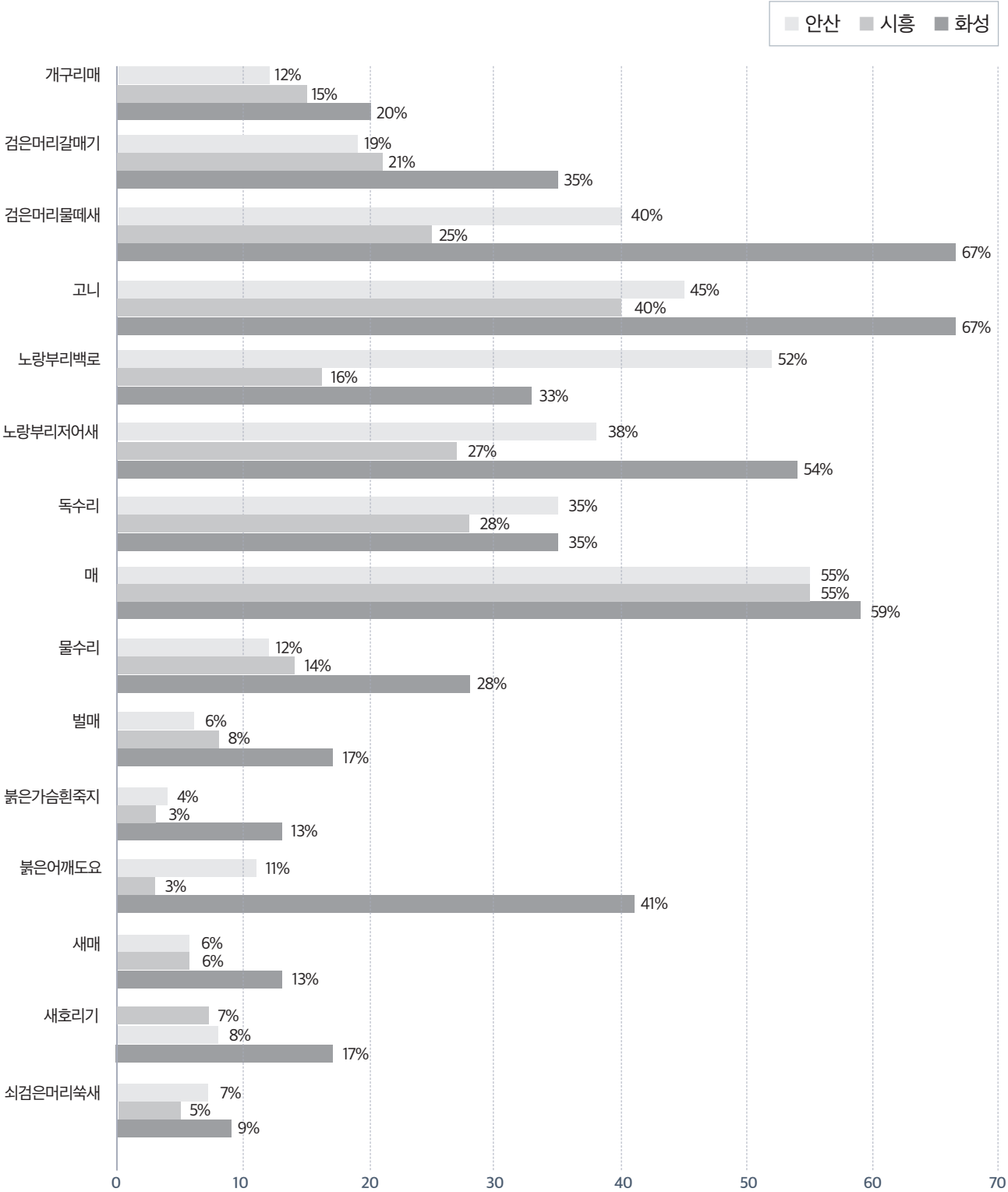


그림 20. 법정보호종에 대한 인지 정도(조류분야)

Ⅳ. 결론 및 제언

시화호 현황에 대한 시민인식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화호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대규모 간척사업이었다. 방조제가 완공된지 3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개발과 관리 및 이용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시화호 유역의 시민들은 시화호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58%)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잘 아는 내용이 수질악화(69%)와 악취(62%)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서 인식의 내용이 시화호 초기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가 비교적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 주요 대상인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인식의 내용과 정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시화호 유역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 대송단지 조성과 분양 등의 현안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화호 향후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시화호유역의 많은 시민들은 ‘시화호의 온전한 모습은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유지되는 바다호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감하지만 해양생태계로서 시화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족하다. 이는 시화호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시화호는 국내의 3위 안에 드는 철새도래지이자 수많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이다. 더욱이 2020년 이래로 겨울에 큰고니와 흑고니의 개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중앙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여러 번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고니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2%, 흑고니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3% 정도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아는 유일한 법정보호종은 전체 43종 중 2종이었다. 더욱이 시화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물길과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개발’과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 보호’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시화호를 앞으로도 온전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 보인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하는 관리만이 시화호를 생태계와 물길, 갯벌이 살아있는 생태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화호에서 가장 많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방조제(68%), 호수(61%), 바다(53%), 조력발전소(52%)이며, 농촌공사(5%), 농지(6%)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연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요한 과제로 꼽고 있는 ‘시화호 생태계 및 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미개방구역인 대송단지가 시화호 생물다양성의 많은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향후 농지 조성이 모두 끝나고 분양이 시작되거나 도로가 개통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023년의 경우 세종시 지하차도 물난리 사고의 여파로 대송단지의 수위들이 낮게 유지되면서 조류종 및 개체수 분포에 큰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물속에 잠겨있던 땅들이 장기간 드러나있게 되면서 식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가지 요인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물서식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습지보호구역은 최근

들어 생물서식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블루카본의 생산지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 그 중요함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시화호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로 그 중요성으로 보아 습지보호구역으로 충분히 지정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안산, 시흥, 화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건전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많은 응답자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생물보호 활동과 생태관광을 선택하였다. 시화호와 관련된 활동은 모든 분야가 양적으로 부족하지만 특히 이 두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원칙적으로 관광과 생물종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물보호에는 방문객이 없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시화호 습지의 이용은 각 기관·단체의 요구와 보전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상당히 많았다.

이제는 절대 접근금지 지역을 선정, 방문 금지 시기 지정,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이용방법 마련 등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로서 시화호를 위해서는 유역의 모든 활동이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같은 이용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실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육, 생태관광, 레저활동 등 시화호 유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할 이용방법에 대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30년을 위하여

응답자의 57%가 50대 이상, 83%가 40대 이상이다. 이는 안산, 시흥, 화성 3지역 모두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바로 밑의 30대는 15%이다. 이는 비단 시화호 유역 만의 문제는 아니나 시화호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시화호 관련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를 유인 할 방법을 모색하든지 노령화되는 활동 연령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든지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시화호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필요성

시화호 방조제가 완공 된 것은 30년이지만, 1977년 ‘안산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이래로 방조제 건설사업이 착수되면서 주변의 많은 산이 깎여 바다를 메꾸었고,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완공 후에도 극심한 수질 악화와 물고기 떼죽음, 농가 염해피해, 시화호 물의 외해방류 등의 이슈로 수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이 모든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제 원주민과 시화호 운동의 초기 참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시화호 유역의 원주민들의 생활사나 환경보전 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관을 위한 조치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모든 경험이 유역의 시민 누구나, 나아가서는 국내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게 공유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소통 시킬 수 있는 시화호도서관이 필요하다. ‘시화호’는 아픈 역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산, 시흥, 화성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다.

시화호 미래상 설정 전문가 토론회



시화호 미래상 설정 전문가 토론회

- ◆ 시화방조제 완공과 함께 시작된 수질오염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바로 알고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 ◆ 시화호 유역 개발에 의한 환경과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시화호의 미래상을 설정

행사 개요

일 시 : 2024년 9월 26일 (목) 14:00~17:00
장 소 :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3층 컨벤션홀
주 제 : 시화호의 과거, 현재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주 최 :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주 관 :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참석대상 : 안산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4명

프로 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 회	14:00-14:20	개회
		인사말(문호방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
		축사(김민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축사(박태순 안산시의회 시의장)
		축사(이방욱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장)
기념촬영	14:20-14:30	기념사진 촬영
주제발표	14:30-15:30	30년간의 안산시의 사회·경제적 변화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박사)
		30년간의 시화호의 환경 변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태 박사)
Break time	15:30-15:50	Break time<장내 정리>
		<주제 :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미래상 설정> [좌장] 원호식 교수(한양대학교) [지정 토론] - 토론1 : 현옥순 의원(안산시의회) - 토론2 : 조현선 과장(안산시 환경정책과) - 토론3 : 원은지 교수(한양대학교) - 토론4 : 류홍번 위원장(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토론5 : 이계숙 대표(해양환경교육센터) [자유 토론]
폐 회	16:50-17:00	폐회

주제발표 자료 보기



30년간의 안산시의 사회·경제적 변화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박사



30년간의 시화호의 환경 변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태 박사

토론자	의견
현 옥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호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시화호의 날을 제정했으며 이외 RE100 선포, 토론회, 태양광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화호를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뱃길 조성 등 조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재개정 등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예산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배려하려고 함
조 현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호 오염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오염 물질의 유입을 적게 해야 하는데, 안산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정상 운영 인바 안산시는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안산시는 시화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신길천 개선을 위해 약 50억원 정도를 투입하려 계획 중이며, 다양성 탐사를 통해 동식물 조사까지도 할 예정임 • 시화호 상류의 갈대습지공원 내에 생태관을 개관하여 이를 통해 수질의 중요성 인식 증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원 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심각했던 시화호의 모습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시화호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 시화호에 살고있는 생물들이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생태계 구조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고 계절의 변화에 있어 구조의 안정성이 연결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느냐가 시화호 생태와 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생태계 구조의 계절적 연결성이나 생물 간 상호작용, 그리고 기초 생산자 (식물 플랑크톤, 시화호의 갈대 등)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사후영양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생태계 구조 내의 기능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이 계 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호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회의적임 • 시화MTV 개발로 생긴 환경개선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쓰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대송습지는 자연 상태로 유지, 보존해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류 홍 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개선 로드맵은 끝났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움 •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함 •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조례와 공동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종합비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시화호는 안산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고 전 세계적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전략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시화호30주년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 ◆ 시화방조제 준공(94.1.24) 이후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살아난 시화호 30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모두의 미래 시화호”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공론장 운영.
- ◆ 시화호가 살아난 배경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관이 협력해 시화호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했기 때문임. 공론장을 통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민이 함께 지키고 만드는 시화호를 위한 정책 제안.

행사 개요

일 시 : 2024년 10월 8일 (화) 15:00~17:30
장 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주 제 :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과제 찾기
주 최 :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주 관 : 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참석대상 : 안산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65명

추진 결관

1차 실무회의: 7월 15일(월) 11시, 지속협 _ 안산시민원탁회의 일정 및 내용 논의
2차 실무회의: 9월 30일(월) 10시, 안산YMCA _ 안산시민원탁회의 진행 논의 및 준비 점검
퍼실리테이터 교육: 9월 30일(월) 19시, 안산YMCA _ 안산시민원탁회의 진행 방식 및 세부내용 교육

프로 그램

사회: 김혜경(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순서	분	내용	세부내용
개회	10	원탁회의 소개	사회자
		인사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발표	20	이그나이트 발표	시화호의 과거와 현재, 시화호 30주년 준비위 경과 강소영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시화호의 미래를 위한 제안 김민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마을열기	10	인사나누기	테이블별 인사나누기 (나를 간단히 소개, 시화호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원탁토론	25	시화호의 미래	키워드 토론- 키워드로 생각나누기 주제 : 내가 꿈꾸는 시화호는 키워드 조합하여 한 문장 만들기

원탁 토론	35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과제 찾기	조별 토론을 통해 주제별 실천 과제 정리 - 생물다양성(생태 환경) - 탄소중립(에너지) - 생태관광, 해양문화 - 협력적 거버넌스 - 생태 및 환경 교육
발표	20	테이블 결과 발표	테이블 발표자 선정, 주제별 발표
마무리	5	사진촬영	

원탁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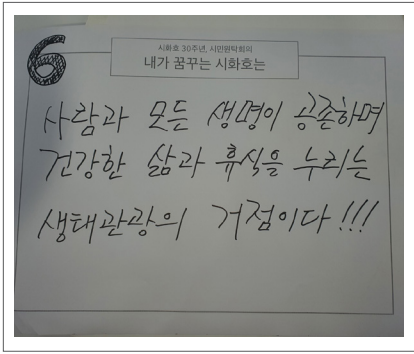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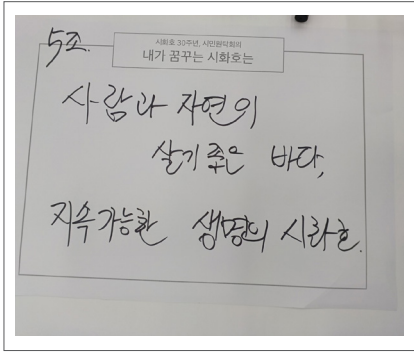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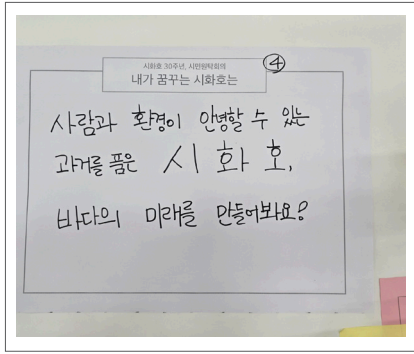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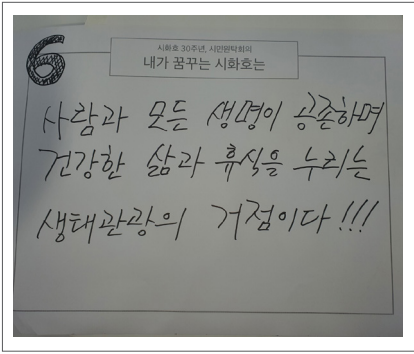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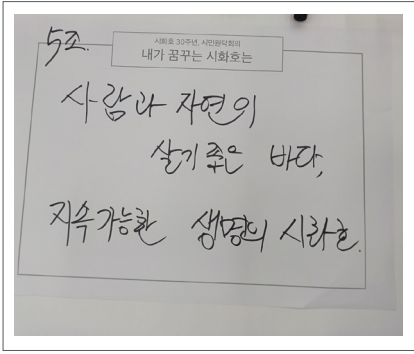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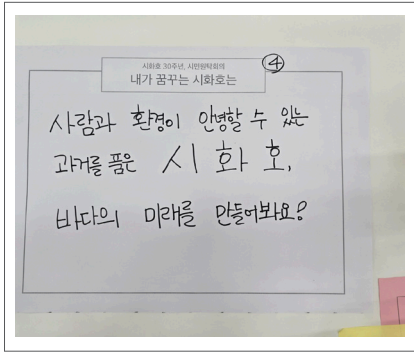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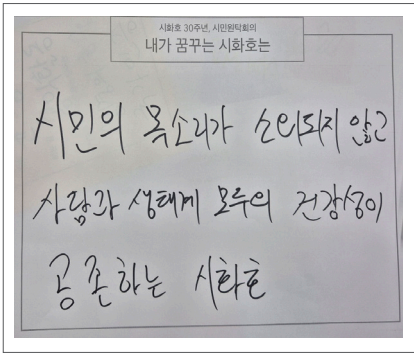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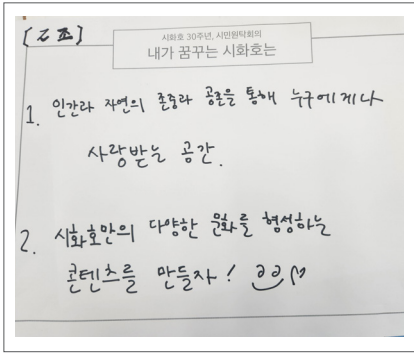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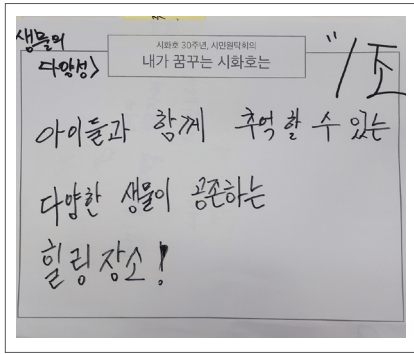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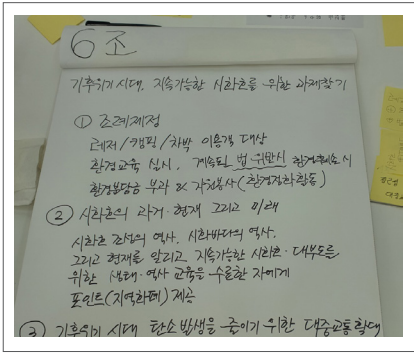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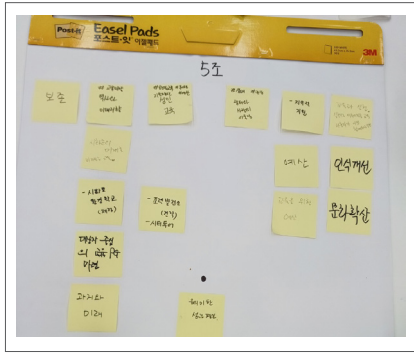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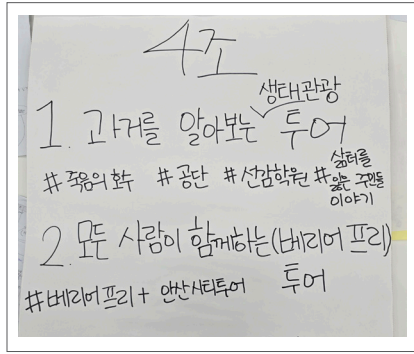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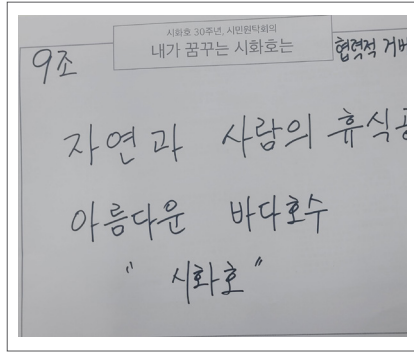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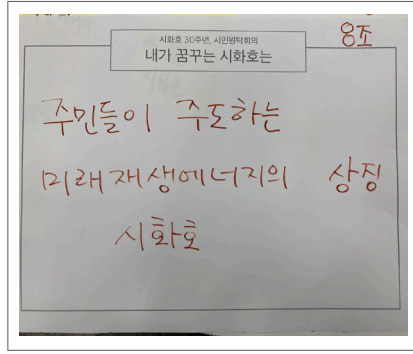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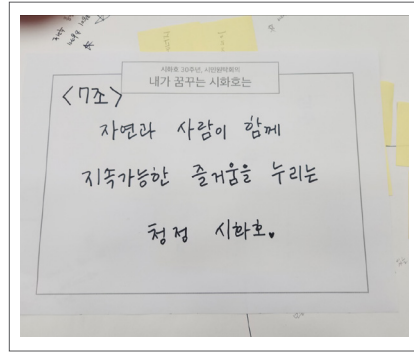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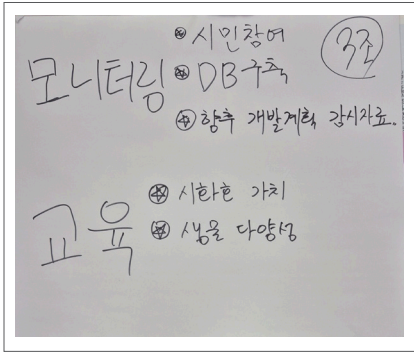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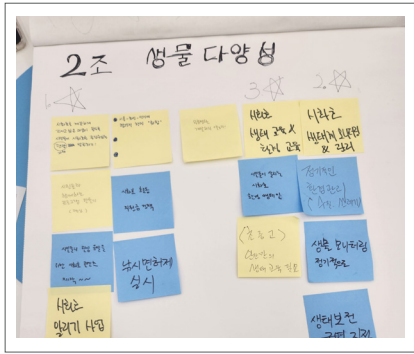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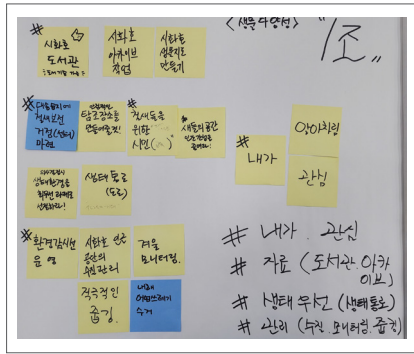
‘시화호의 미래’ 키워드 토론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신미옥 외 19명 •키워드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힐링장소 -인간과 자연의 존중과 공존을 통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공간 -시화호만의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콘텐츠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사람과 생태계 모두의 건강성이 공존하는 시화호
탄소중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염은옥 외 10명 •키워드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사람이 함께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누리는 청정 시화호 -주민들이 주도하는 미래재생에너지의 상징, 시화호
생태관광 해양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홍영희 외 6명 •키워드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과 환경이 안녕할 수 있는 과거를 품은 시화호와 바다의 미래를 만들자
생태 및 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윤석만 외 12명 •키워드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바다, 지속가능한 생명의 시화호 -사람과 모든 생명이 공존하며 건강한 삶과 휴식을 누리는 생태관광의 거점
협력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유미화 외 6명 •키워드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사람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바다호수, “시화호”
결론	생물다양성, 탄소중립(에너지), 생태관광·해양문화, 생태 및 환경교육, 협력적 거버넌스 총 5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토론했으나, 공통적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 들어가 있음. 시화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나 근본적으로 공존을 꿈꾸고 있음.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과제 찾기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신미옥 외 19명 •시화호를 위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도서관, 생물지도, 아카이브 등 시화호의 과거와 지속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계획 시민에게 공유하기 -생태환경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시화호 인근의 도로를 생태통로로 활용하기 -복원된 시화호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 및 생태 모니터링, 불법 어업 관리
탄소중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염은옥 외 10명 •시화호를 위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유역 내 자전거 및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반월공단 내 기업 참여 독려 필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의 의견과 혜택 보장되는 조례 제정
생태관광 해양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홍영희 외 6명 •시화호를 위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를 알아보는 생태관광 투어 : 잊어서는 안되는 과거와 삶을 잃은 주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안산시티투어 : 시화호 및 대부도 일대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 -치유팜, 염생식물국제정원, 염전터 보호 등 지속가능한 환경 투어
생태 및 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윤석만 외 12명 •시화호를 위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제정 : 레저·캠핑·차박 이용객 대상 환경교육, 환경분담금 부과 및 자원봉사 -시화호 관련 생태·역사 교육 및 자원봉사 수료자에게 지역화폐 포인트 제공 -탄소저감을 위한 시화호 및 대부도 일대 대중교통 확대
협력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유미화 외 6명 •시화호를 위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생성 -안산·시흥·화성이 현재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협력하여 하나의 권역으로 시화호 보호 및 발전 필요 -시화호 인근 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필요 -시화호 관련 교육 기행

시화호의 미래를 위한 시민 제안

- ◆ 시화호의 30년 자료 구축 및 공론의 장을 만들어 향후 개발 계획을 시민과 협의한다.
- ◆ 조례 제정 및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화호로 나아간다.
- ◆ 시민이 참여하는 시화호 모니터링, 시화호 교육 및 생태투어 등을 지속 운영한다.



영상
보기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
현장 스케치영상

시화호 30주년 홍보활동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시화호 홍보부스(24.05.04.-24.05.06)

시화호 전시

시화호의 30년 변화 과정



시화호에 살고 있는 새들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홍보




시화호 체험활동(검은머리물떼새 키링 만들기, 시화호 새 컬러링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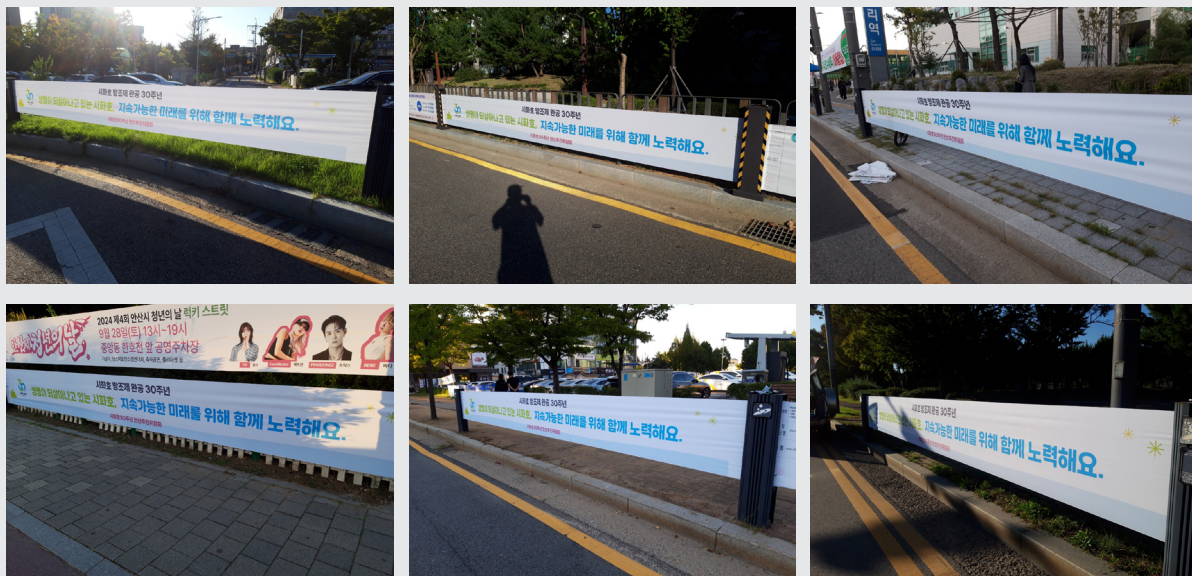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시화호 홍보전시(24.06.01)





**시화호30주년
기념사업**
(안산환경재단)

시화호 30주년 홍보 현수막 게시(24.10.02-24.10.15)



중앙대로 단원구청 삼거리, 초지동 시민시장 메이저타운 출구, 중앙역 택시승강장 도로, 안산시청 앞, 사리역 삼거리, 성포동 현대아파트 삼거리, 고잔신도시 로데오타운 스타벅스 앞, 선부광장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등 총 8곳 게시





시화호 생물다양성탐사대회

행사 개요

일 시 : 2024. 9. 28. 09:30 ~ 17:00

장 소 : 안산갈대습지

탐사분야 : 8개 분야

(식물, 육상곤충, 수서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저서무척추)

참여대상 : 전문가, 일반시민 300명 참여

주요내용 : 탐사활동

· 탐사내용 :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안산갈대습지 생물종 조사활동

· 탐사인원 : 분야별 4~5팀(20명 이내)

조사결과 : 8개 분야 408종 발견 ※신규 보호 생물종(붉은발말뚝개)이 조사 됨.



안산갈대습지축제 행사 결과

축제 개요

일 시 : 2024. 10. 12.(토) ~ 13.(일) (10:00 ~ 17:00)

장 소 : 안산갈대습지, 갈대습지로, 생태누리관 등

참여인원 : 안산시민, 경기도민 등 13,500명

구성사항 : 1일 6팀 공연 진행, 9팀 부스 운영, 이벤트 3개 운영

세부사항 : 플로깅콘테스트, 사생대회, 페이스페인팅, 야간 빛의 정원 등 운영





활동을 마치며
(시민의견종합정리)





시민의견종합정리

시화호3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며 ‘시화호 시민인식 설문조사’, ‘시민과 함께 시화호를 걷다’, ‘모두의 미래 시화호, 안산시민원탁회의’를 하면서 안산시민들을 만났고, 시화호 미래 비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습니다. 6개월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산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이후 시화호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주춧돌로 쓰이길 바랍니다.

분야	의견
시민참여 교육·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걷기’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시화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화호의 변화,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이해 확산•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교육·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생태계 보존 교육’이 필수 시행
제도화 정책·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보존을 위한 ‘지자체-지역사회’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안산·시흥·화성 시화호 권역 노력 필요 (지방정부간, 시민사회간 등)• 시화호 보존과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레저 이용객 대상 환경교육, 환경부담금 의무화 - 시화호 환경개선 참여자 인센티브 통한 시민에 의한 보호 활동• 시화호 수질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모니터링 및 불법 어업 관리• 해양생태계 유지 위한 가이드라인 (접근금지 지역, 방문금지 시기 등)• 미 개방 지역 습지보호구역 지정 통한 생태계 보호, 기후위기 대응
아카이브 기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의 과거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위한 체계 구축• 시화호 도서관 등 자료 보관, 축적을 위한 공간 마련• 시화호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연구모임)• 미래의 시화호 논의를 위한 젊은 세대 유입, 참여 독려